

# 성도의 빛

8-9  
1986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

4 3 # 2



# 성도의 빛

1986년 8-9월호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예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킹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메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문:

칼로스 이 에시, 렉스 디 피네가,  
조지 피 리, 제임스 엠 패터모어

통 권 : 제246호, 제22권 제6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 1986년 8월 1일(겨울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김 영 철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 0482K0

PRINTED IN KOREA 8-9/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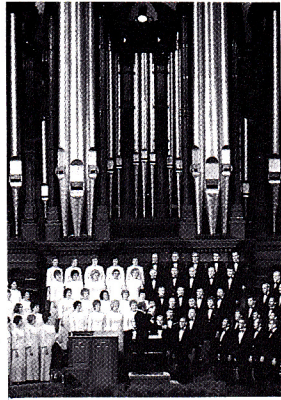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관리본부 배부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태버네클 합창단 소개(p 23)

## 차 례

- |    |  |
|----|--|
| 1  | 게시에 관한 존 테일러의 말씀                             |
| 2  | 승영으로의 초대<br>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 10 | 회개 : 우리의 영적인 의복의 얼룩을 지움<br>필립 에이 스나이더        |
| 14 |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에즈라 태프트 벤슨 연구소)<br>젠 언더우드 핀보로    |
| 19 | 사백명의 이름...다음에<br>존 비 피시                      |
| 20 | 마지막 500미터<br>멜빈 레비트                          |
| 22 | 새로운 찬송가—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
| 23 | 화음 속의 300명의 간증—태버네클 합창단<br>재닛 피터슨            |
| 28 | 바난 다슨 : 가나에서 복음을 찾음<br>로리 윌리엄스 소우비           |
| 30 | 좋은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br>윌터 스완                      |
| 32 | 주님을 믿음<br>진 알 쿡 장로                           |
| 37 | 장막 저편으로부터 오는 위안<br>오웬씨 베니온                   |
| 38 | 결혼과 수확의 법칙<br>로렌스 엠 배리                       |
| 42 | 심심풀이—금판 찾기                                   |
| 43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br>매리 엘 테르                     |
| 45 |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br>Grietje Rowley             |
| 46 | 남은 만도린<br>웬디 에프 카노                           |
| 48 | 물문과 물문경<br>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 1900—1984 |
| 50 | 교회 및 지역 소식                                   |



예언자의 말씀

## 제시에 관한 존 테일러의 말씀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하며, 성령의 영감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사람이 학식이나 여행 경력의 다소 등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의 재능, 지성 천재성이라든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혹은 다른 일에 있어서 그의 시야와 판단력이 얼마나 넓고 뛰어나느냐 등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시의 필요성의 원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시가 아니라 이 계시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이 생의 모든 분야와 또, 이 생애 이후의 영생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줄 현재 당장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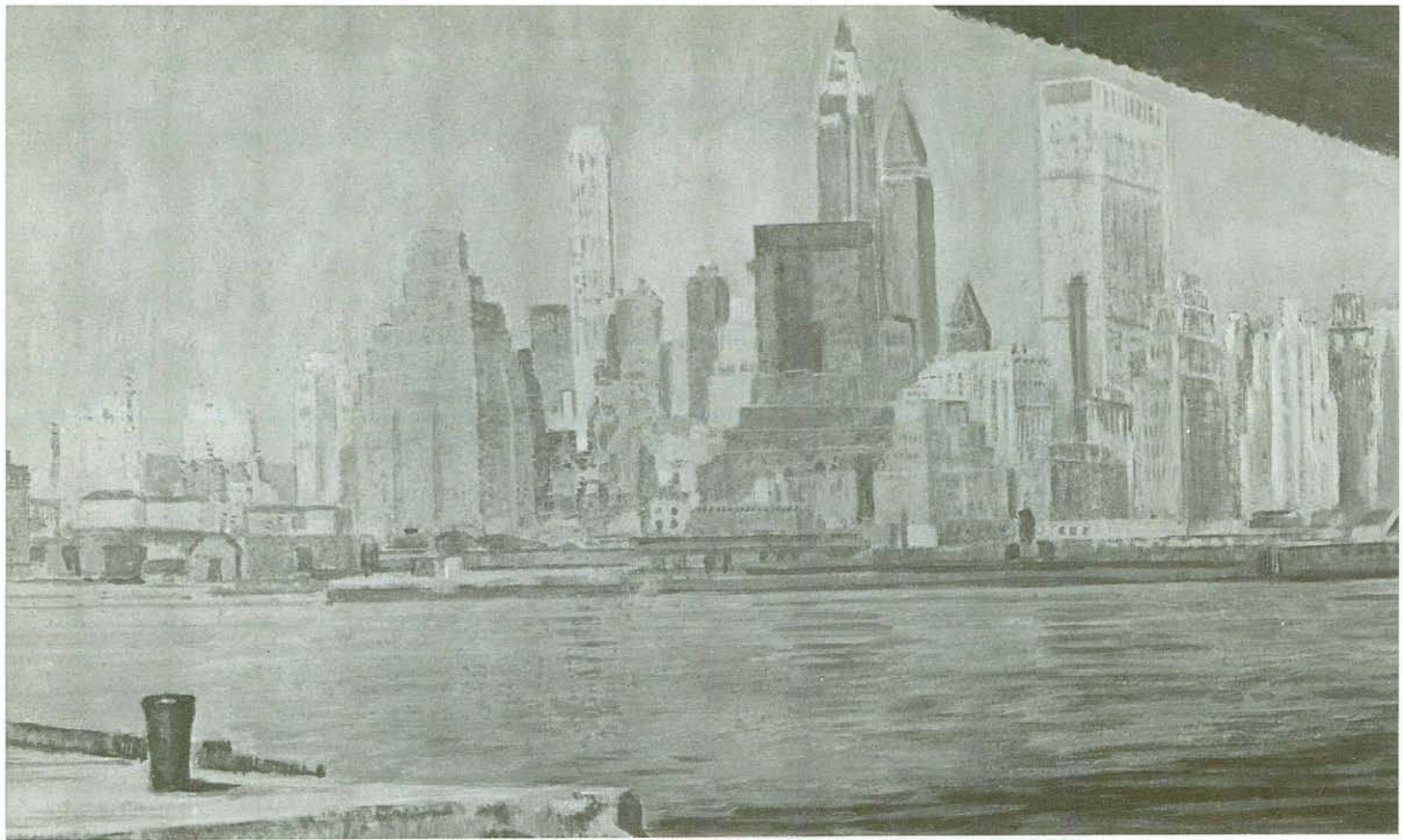
현대의 계시라는 개념을 상당히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참된 종교에 대해서 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인간의 마음으로 엿볼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대 계시라는 개념을 배척하기 때문에 회의론과 불신앙이 이렇게 놀라우리만치 횡행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경멸하며 종교는 지성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없다면 종교는 조롱거리와 우스개 밖에 안됩니다.

만일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주며 불사불멸과 영생의 원리에 마음을 열게 해주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면 종교와는 아무 연관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계시의 원리야말로 바로 우리 종교의 기초입니다. 기독교계는 그것을

부인하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의 내용을 열심히 상고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책이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시도록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5:39)

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기 위하여 그 동안 주셨고 또 주고 계시며 또 앞으로 주실 계명을 모두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시를 주시는 분과 그런 원리를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하여 도구로 쓰시는 거룩한 분들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에 있는 원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도록 간구하겠습니다. \* (설교집, 16:373~376, 1874년 2월 1일.)



대관장단 메시지

## 승영으로의 초대

토머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은 바쁘다. 비행기들이 귀중한 승객을 싣고 광대한 대륙과 넓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켜야 할 약속도 있고 관광 여행지가 손짓하며 친구와 가족들은 특정한 비행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고속 도로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서남북으로 끝이 없어 보이는 교통 대열을 이루고 있으며 수백 만명의 사람이 탄 수백 만대의 자동차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숨가쁜 인간의 흐름이 멈추기도 합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생활의 흐름을 가끔 멈추고 잠깐 동안의 명상이나 영원한 진리에 대하여 생각합니까?

영원한 진리와 비교해 보면 일상 생활의 제반 문제는 사실은 비교적 사소한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엇으로 할까? 오늘 밤에 좋은 영화가 상영되는지? 텔레비전 방송 시간표를 보았습니까? 토요일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은 위기가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건강한 육체에 고통이 생기거나 생명 자체가 때로는 아직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끝나려고 할 때가 되면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때가 되면 진리와 생활 속의 사소한 문제들은 곧 분리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늘을 향하여 뻗어가며 인생의 가장 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학 교재나 전화 교환이나 동전을 던지거나 선다형 문제에서

하나를 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문은 육신의 범주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는 영원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갓난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릴 때 모든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을지라도 필연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기적적인 순환 계통, 소화기 계통, 신경 계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작은 발가락, 고사리같은 손가락, 예쁜 머리 등은 모두 거룩하신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서도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아멘(아데네)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습니다.(행 17:29)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육신의 부모의 소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15)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은 바로 영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분을 “모든 영의 아버지”(히 12:9)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육신처럼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육신과 영으로 이루어진 영혼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사 승영하시고 전지 전능하시며 그 영과 권세와

영향력에 있어서 무소부재하시며 땅과 하늘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입니다.(교성 76:24)

사도 요한은 구세주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세의 생활에 관한 중요한 사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요 6:62)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 모든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마 13:55)라는 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성역이 끝날 때까지도 주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그분을 군중 속에서 가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반자 유다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전세의 생활은 그렇게 자명하게 가르쳐졌는데도 우리의 전세 생활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경전을 떠나서도 영감받은 시인들은 우리의 이런 주제에 대하여 사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쓰고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은 사상을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그 진리를 이런 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출생은 수면 그리고 망각  
우리와 함께 뜨는  
인생의 별인 영혼은  
어디엔가 졌다가 먼 곳에서  
오는 것  
완전한 망각도 아니며  
완전한 별거숭이도 아닌 채로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다. (“불멸의 송가”)

또 어떤 작가는 갓난 아기를 “이 지상에서 꽃피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부터 신선하게 떨어져 내린 인류의 홀륭하고 새로운 꽃”으로 묘사했습니다.

부모는 자그마한 아기를 내려다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신 “집”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우리는 이런 영속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갓난 아기의 무력한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적인 의존 상태에 대하여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영양과 영혼을 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두 가지를 다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자신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얻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4)로 내려온 어머니는 어머니의 임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먼 옛날에 선지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하는 일이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하여지는 것임을 가르치며, 참으로 너희는 부모들을 가르쳐 저들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마치 저들이 어린 자녀들 같이 겸손하도록 하라. 그리할진대 저들이 그 자녀들과 더불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저들의 어린 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하지 아니하니, 보라 침례는 속죄의 계명을 이루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느니라.”(모로 8:10~12)

주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고 침례 받아야 하는 팔 세가 될 때까지 특권을 부여하는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글렌 도먼 박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거의 모든 면에서

보거나 자라나는 자녀의 손을 만져보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영감을 주고 안내와 방향과 모범을 제시할 책임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가 사색하는 동안 자녀는, 특히 청소년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영혼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은 대개 영혼 속에서 조용히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 “내 아버지 집에...”

현명하신 창조주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신을 입증할 기회가 되는 시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신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갖추도록 천세에 대한 망각의 장막을 거쳐 여기에 있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하늘에 계시는 부모와 분리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과 경험을 얻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스스로 선택할 특권을 받았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울은 인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빌 2:12)어야 한다고 가르친 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황금물이라고 알고 있는 지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훨씬 더 뛰어나기는 하지만 아직 아무 것도 입력시키지 않은 빈 컴퓨터와 같다... 그 아기의 생애에서 첫 팔년 동안에 그의 두뇌 속에 집어 넣어지는 것이 아마도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자녀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방법, 필라델피아: The Better Baby Press, 1979년. 43, 45페이지)

어린이의 형성기는 복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세워진 생활을 쌓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영생을 위한 기초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그 생활은 육신의 폭풍우와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가르칠까요?” “어떤 원리가 훌륭한 결과를 가져 올까요?” 신앙이야말로—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꾸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 가르칠 첫번째 원리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히브리서 4:2)

몇 년 전에 솔트레이크 신문에 나의 절친한 친구집의 초상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이며 자녀들의 어머니가 인생의 황금기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는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비탄에 빠진 남편과 어머니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로하려고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막내아이인 켈리가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이리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신이 누인 관 앞으로 데려 갔습니다. “몬슨 형제님, 나는 울지 않아요. 형제님도 우시면 안돼요. 엄마가 죽음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시 함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젖은 눈으로 그 아름답고 신앙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켜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나의 이 어린 친구에게는 절망적인 새벽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덤 저편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아는 불굴의 신앙의 뒷받침을 받을 때 그 소녀는 또 그의 아버지, 오빠, 언니, 사실상 이 거룩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외에도 회개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옛날에 에스겔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찌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에스겔 18:30)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언제 어디에 사는 사람일찌라도 잘못된 행위를 그만 두고 의로운 생활로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훈계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모범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표시하신 길을 따릅니다.

우리는 성신을 받기 위하여 권능을 지닌 사람의 손으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는 빌립보가 사마리아에서 선교 사업을 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사도행전 8:14~17) 이런 주요한 원리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야말로 가족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비를 막는 지붕이며 바람을 막는

벽이며

추위를 막는 마루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기의 웃음 소리, 어머니의 노래, 아버지의 강한 힘

사랑에 찬 따뜻한 마음과 행복에 빛나는 눈과 친절과

충성과 동료 의식이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어린이가 처음으로 다니는 학교이자 교회입니다.

무엇이 옳고 선하고 친절한 것인지 배우며

다치거나 병들 때 위로 받으러 가는 곳이며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달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가 위함받고

금전이 사랑에 찬 친절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어베스틴 슈먼하인크 여사)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면 청년기가 다가옵니다. 성숙 과정은 너무나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필멸의 인생 여로를 갈 때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감받은 사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은 형제입니다.

인생은 임무이며

직업이 아닙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생의 진리를 따르고 그들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도록 손짓하고 계십니다.(마 5:48; 니삼 12:48)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율법사를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 : 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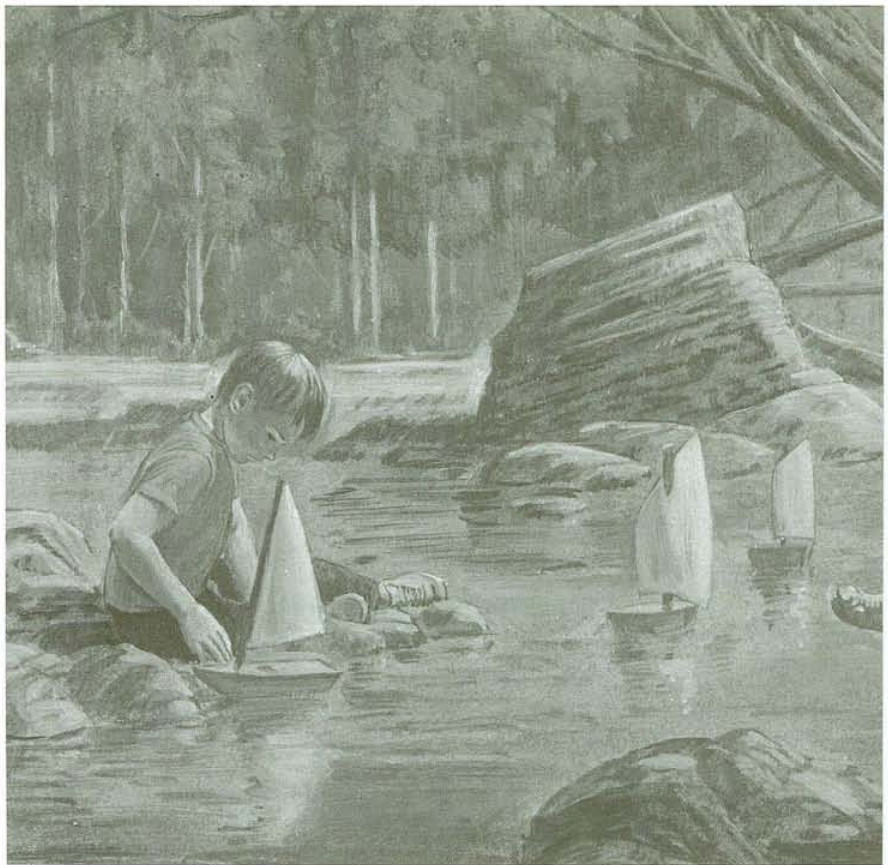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갖고 달리는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린도전서 9 : 24)

### 끝까지 견딤

다른 일에 너무 열중하여 전도서에 있는 다음의 훈계를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전도서 19 : 11) 실제로 상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돌이켜 보노라면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또 다른 경주를 회상하게 됩니다. 내가 열 살쯤 되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주머니 칼을 갖고 버드나무의 부드러운 목재를 가지고 조그만 장난감 배를 만들곤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배에 삼각형 무명 돛을 달고는 프로보강의 비교적 사나운 강물에 배를 띄워서 경주를 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달리며 그 작은 배가 때로는 빠른 물살 위로 심하게 흔들리다가 또 물이 깊어지면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한번은 그런 놀이를 하는 동안에 어떤 배가 다른 배를 모두 앞지르고 결승점에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길에 끌려서 큰 용소로 들어가 옆으로 기울어지더니 전복해버렸습니다. 그 배는 빙빙 돌기만 하며 강물의 본류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 배는



웅덩이의 가장자리에 끌려가 다른 찌꺼기에 둘러싸이고 푸른 이끼에 꼼짝없이 붙들렸습니다.

어린이의 장난감 배는 수평 안정판도 없고 배의 방향을 잡아 줄 방향타도 없고 추진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는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강을 따라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난감 배와는 달리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달성할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무죄한 어린이 상태로 하늘의 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지 않은 채 우리가 영원한 항해를 하도록 출발시키시지는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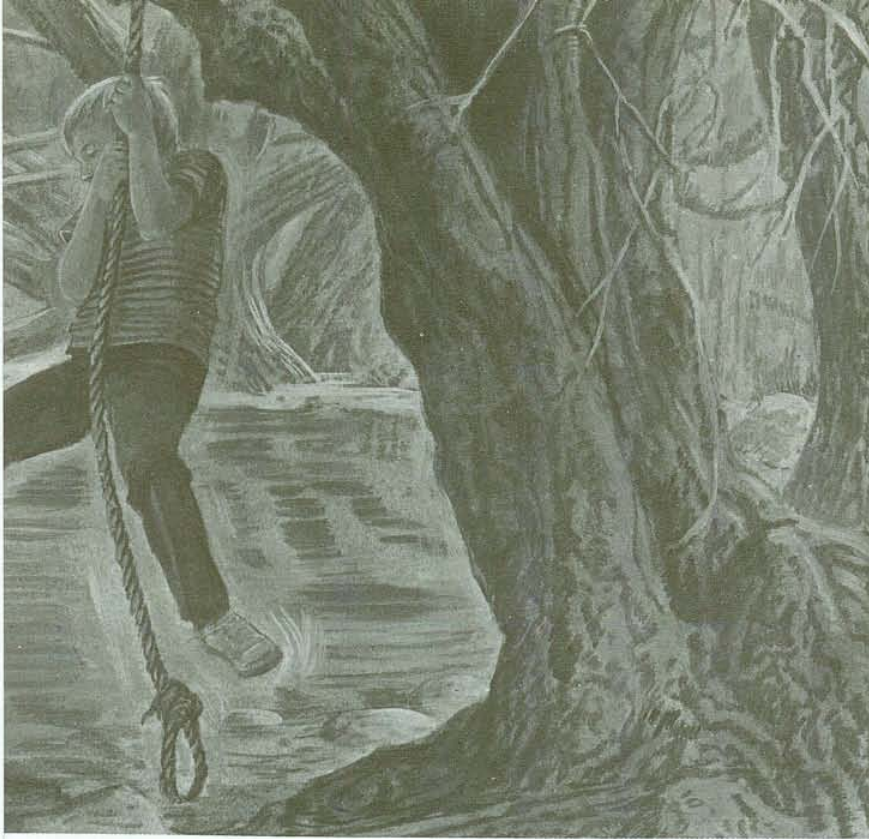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건너야 하는 바다를 이미 성공적으로 항해한 항해사들이 기록한 거룩한 경전도 간과하면 안됩니다.

### “나를 따르라”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준비를 갖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시각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 종착지가 바로 행복일 것이며, 그 길은 덕, 의로움, 성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 이 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훌륭하게 정의내려진 목표 뿐 아니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가장 기쁘게 대하신 것은 자녀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즉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구세주께서 방문하신 것,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인, 니파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째, 우리는 자신이 결정한 길로부터 우회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도중에 갈래길과 구부러지는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회하다가 파멸과 영적인 사망으로 이끌려 갈 때가 있으므로 우리는 사치스럽게 우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방을 위협하는 도덕적인 모래 함정과 죄의 소용돌이와 영감받지 않은 철학의 역류를 해야겠습니다.

네째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박해자인 사울이 어떻게 전도하는 바울이 되었으며, 베드로가

성도의 빛/1986년 8-9월호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지닌 사도가 되었던 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은 우리의 만형인 주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어린 소년의 몸으로 명심해야 할 권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모범으로 애정과 사랑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도 명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 죽음이 끝인가?

우리의 필멸의 임무 기간에는 다리가 떨리고, 병약한 미소, 질병의 고통-여름이 사라지고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또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경험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약 시대에 욥이 이야기 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 14:14)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돌아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닥쳐옵니다. 노인이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닥쳐옵니다. 인생의 여정의 절반도 걷지 않은 사람이 죽음의 호출을 듣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의 웃음 소리를 잠잠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뒤의 존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까? 어떤 젊은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문경을 열고 엘마서의 다음 구절을 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으며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엘마 4:11~12)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신이 무덤에 누어진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영육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벧전 3:18~19)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

25) 다시 베드로의 서한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뉘여진  
 삼일 이후 영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돌이 굴러져 나왔으며 부활하신  
 구속주께서 불사불멸의 살과 뼈로  
 된 육신을 입으시고  
 일어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마리아와 몇 사람이 무덤에 와서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분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가까”라는 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시신을 돌보러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세 가지 간증을 포함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많은 간증은  
 위안과 지식을 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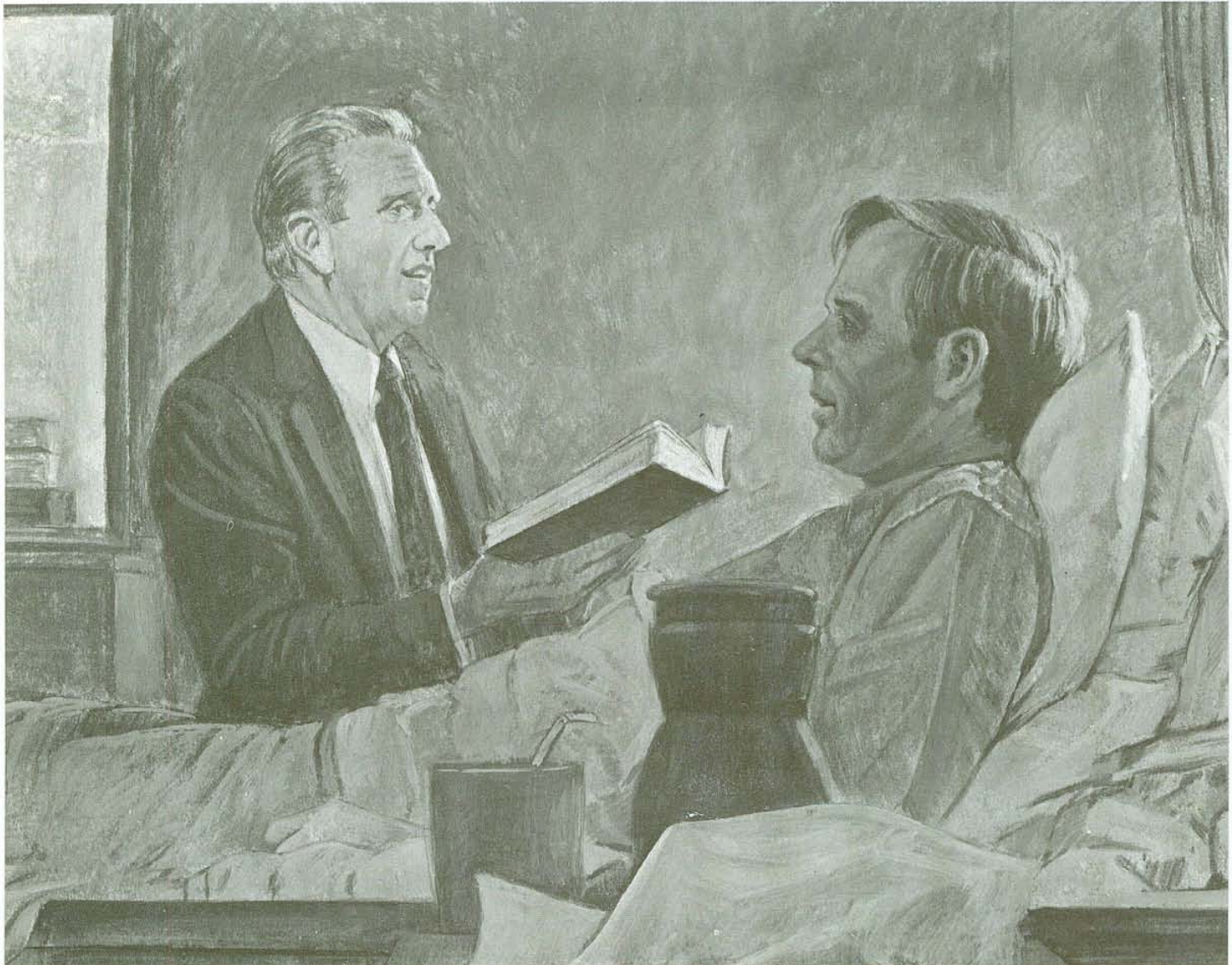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3~8)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서인 물몬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의  
 다른 양 가운데 2500명의 합쳐진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이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손을 주의 열구리에 넣어 보며, 그 손과 발의 못 자국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모두 만져 보고 나서, 저들의 눈으로 보며 친히 만져 보아 진실로 저가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분이심을 알아 증거하였으니,

“우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니삼 11:13~17)

세째로 요셉 스미스의 간증입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22~24)

#### 모두 부활함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신 결과로써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40~42)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해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싶어하는 곳은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싶어하는 곳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런 축복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 필멸의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주님의 집이 온 땅에 퍼져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간증한 것처럼 조상의 마음이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이 조상에게 돌이켜졌습니다.(교성 110:14~15) 어떤 사람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만인 공통의 의문이 더 이상 해답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겸손하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참됨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또 잃어버린 자녀, 우물쭈물하는 십대, 방탕한 젊은이, 태만한 부모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이런 사람들에게 또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이리 오라. 들어 오라.. 집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승영으로 오라는 거룩한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간구합니다. \*

(1984년 3월 1일 솔트레이크시티 구도자 노변의 밤에서 위성 중계를 통하여 행하신 말씀)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전에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2. 문슨 부대관장님은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자녀에게 가르칠 첫째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 행복에 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살펴 봅시다.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까?

4. 경전에서는 전세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토론시 유의 사항

1.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데 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2. 그런 영원한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3.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나?

4.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 회개 : 우리의 영적인 의복의 얼룩을 지움

몇 년 전에 내가 가장 좋아하던 옷 가운데 부모님께서 성탄절 선물로 주신 갈색 면바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옷을 입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가르치는 영어반 학생들과 함께 컴퓨터실에서 작업할 때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 터미널에 앉아 있는 동안에 운 나쁘게도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대고 있다가 뭔가 끈끈한 것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다리를 떼는 순간 누군가가 씹었던 분홍색 껌이 내가 좋아하는 그 바지에 붙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탁자 밑의 끈끈한 껌으로부터 옷을 떼고 옷에 붙은 껌을 떼어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떼냈지만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얼룩이 바지에 끈끈하게 들러붙어 있어서 좀처럼 떨어지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반원들을 해산시키고 서류 가방으로 바지를 가리려고 애쓰면서 급히 차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집으로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아내는 “드라이크리닝하는 세탁소로 가서 껌을 떼내 달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충고를 따라 드라이크리닝 세탁소로 그 바지를 가져 갔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바지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나는 그 츄잉껌 사건이 있는 다음에는 바지에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바지에 얼룩이 지게 하거나 뜯어지게 할 만한 일은 일체 피했습니다. 책상이나 탁자에 앉기 전에 그 표면 밑에 씹던 껌이 붙어있지 않나를 살펴보면 특별히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옷은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옷에 더러움이 찌들지 않게 하고 맵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구적으로 세탁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사람도 바지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때로는 껌보다 더 지우기 힘들고 끈끈한 더러운 것으로 얼룩이 지거나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에 면역이 되어있거나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명과 그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에 물들 기회를 거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순간의 부주의나 약함으로 인하여 깨끗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회개의 원리를 통하여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 강하게 해주는 위치에 자신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회개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정해진 단계를 밟음으로써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남아있음으로써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성약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면바지가 마침내 이전의 깨끗한 상태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다음 이전의 죄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앰울레크는 엘마서 34장에서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애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32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14절에서 이야기 한 “최대 최후의 희생 제물”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이 생애를 최대로 활용하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35절) 주님의 영으로부터 잘리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리와 성약 19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힘있고 깊은 감동을 주는 그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여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와 나의 분노와 나의 노여움으로 너희를 치지 않게 하고 너희 고난이 극심하지 않게 하라.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너희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알지 못하니, 참으로 그러하다. 너희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하는도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15~19절)

분명히 경전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세주의 거룩하신 중재없이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하는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과 현대 계시는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모르는 상태로 머물도록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전과 현대 계시는 모두 다 대속이 우리 생활에서 권세있고 깨끗하게 해주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단계에 관하여 가르침과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회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전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시 전체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니느웨(요나)의 회개와 단 열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파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 18 : 20~33, 19 : 1~26)

그리스도의 성역과 그 뒤의 사도들의 성역이 적힌 신약전서는 회개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모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으로서 회개에서, 또 회개한 죄인이 의로운 상태로 돌아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의 기적적인 개심과 회개의 이야기는 성신의 영향력을 통하여 사람에게 올 수 있는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잘 나타내 줍니다. (행 9 : 1~31, 22 : 1~16)

물론경에는 엘마 이세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개심한

이야기(모사 27, 엘마 36 참조)가 바울의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회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고통과 기쁨에 관하여 훨씬 더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노스의 이야기는 죄의 용서를 얻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힘있는 기도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예입니다.(이노스 1~8)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기사(니삼 10:18~19; 11~28:12)와 200여년 간의 평화와 번영(니 4) 및 그 뒤에 악으로 되돌아가서 마침내는 니파이 나라가 멸망할 것(몰몬 1~8, 모로나이 9)에 관한 기사는 끊임없는 겸손과 회개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에도 회개의 이야기가 있으며 여기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고난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원리와 그것이 우리 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현대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대회 보고 말씀과 성도의 빛에 있는 기사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회개의 축복을 입증해 주는 서로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회개의 본질적인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죄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죄를 짓는 부정적인 행위를 계명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긍정적인 행위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 죄에 대하여 최종적인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불경한 말을 하는 못된 버릇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친구들이 저속한 말을 썼으며 나는 처음에는 그런 말의 매력에 저항하다가 마침내 거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약 일년 후 내가 막 십육세가 될 즈음 내가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양심에 작용한 성신의 영감에 의한 깨달음이었다고 확신하며 이런 것을 인식하자 어두운 죄의식이 내 온 몸을 완전히 감싸는 것 같았으며 나는 회개하고 이 죄를 나로부터 영원히 몰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처음 두 가지 과정 즉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언어를 정화하는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회개 과정의 3,4,5 단계에 집중하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 주로 교회 회원들을 사귀고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다른 표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무심코 잊기도 했지만 마침내 불경한 말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경한 말을 내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한 다음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저녁에는 내가 이룩한 발전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늘 반복해서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전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이해심이 많았으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혀와 마음을 통제한 다음 용서받기 위하여 필요한 마지막 단계 즉 용서 그 자체를 빼고는 모든 단계를 완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바지를 드라이크리닝할 때처럼 이 마지막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기도드린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내가 구하고 있던

용서받았다고 하는 평화로운 느낌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큰 기쁨을 느꼈는데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지가 물리적으로 깨끗해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약 15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내가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죄에 두번 다시 빠져들지 않으므로써 그 용서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했으므로 이전에 느꼈던 그런 고통을 안고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죄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죄에는 감독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 과정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용서도 확실하고 결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나의 불경한 언어처럼 심각하지는 않고 매일 또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즉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기회를 맞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질적인 것은 회개의 원리를 활용함으로써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망의 심연에 빠져 있을 때에도 희망을 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우리의 의와 회개를 통하여 이런 축복이 우리 것이 되고 마침내 이 지상에서 충실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궁극적인 축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

나 는 바지에 껌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도  
더러워지기 쉬우며 “세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

##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연구소

젠 언더우드 편보로

벤슨 연구소에서 사진 제공



벤슨 연구소 인원 몇 사람이 소규모 영농에 적합한 농기구와 동물과 함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일 오베르그가 소형 트랙터를 갖고 있다.  
 리차드 브림홀과 라렌 로빈슨이 태양열 오븐을 갖고 있다.  
 두이스 에스피노자가 자전거로 동력을 증강하는 곡식 그라인더를 갖고 있다.  
 빈센테 에스피노자가 정봉에 다시 테두리를 대는 장치를 갖고 있다. (무릎 꿇고 있다).  
 폴 존스톤 박사가 물모트를 갖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였다.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교성 104 : 17) 매일 신문에 보도되어 낮익은 기아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 평가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는 매년 1천 3백만 내지 1천 8백만 명이 굶어죽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영양실조 및 그것과 관련된 질병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정신적 육체적 결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굶주림은 지구상에서 여덟 명 가운데 한 사람이 매일 겪는 문제이다. 잘 먹는 사람에게는 그런 통제는 충격적이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진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에는 무력감이 깔려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그들을 무시함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단호한 결심을 한

사람과 단체는 세계를 먹이는 이런 과제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농업 및 식량 연구소가 있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이 비영리 조직은 세계의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이 에파도르, 마나비도(道), 포토비조의 홈베르토 카나르테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홈베르토와 그의 아내는 대서양 연안의 비옥한 농지 약 일 헥타아르로 다섯 명의 자녀와 두 명의 손자를 키운다. 카나르테 가족에게는 농사가 생존의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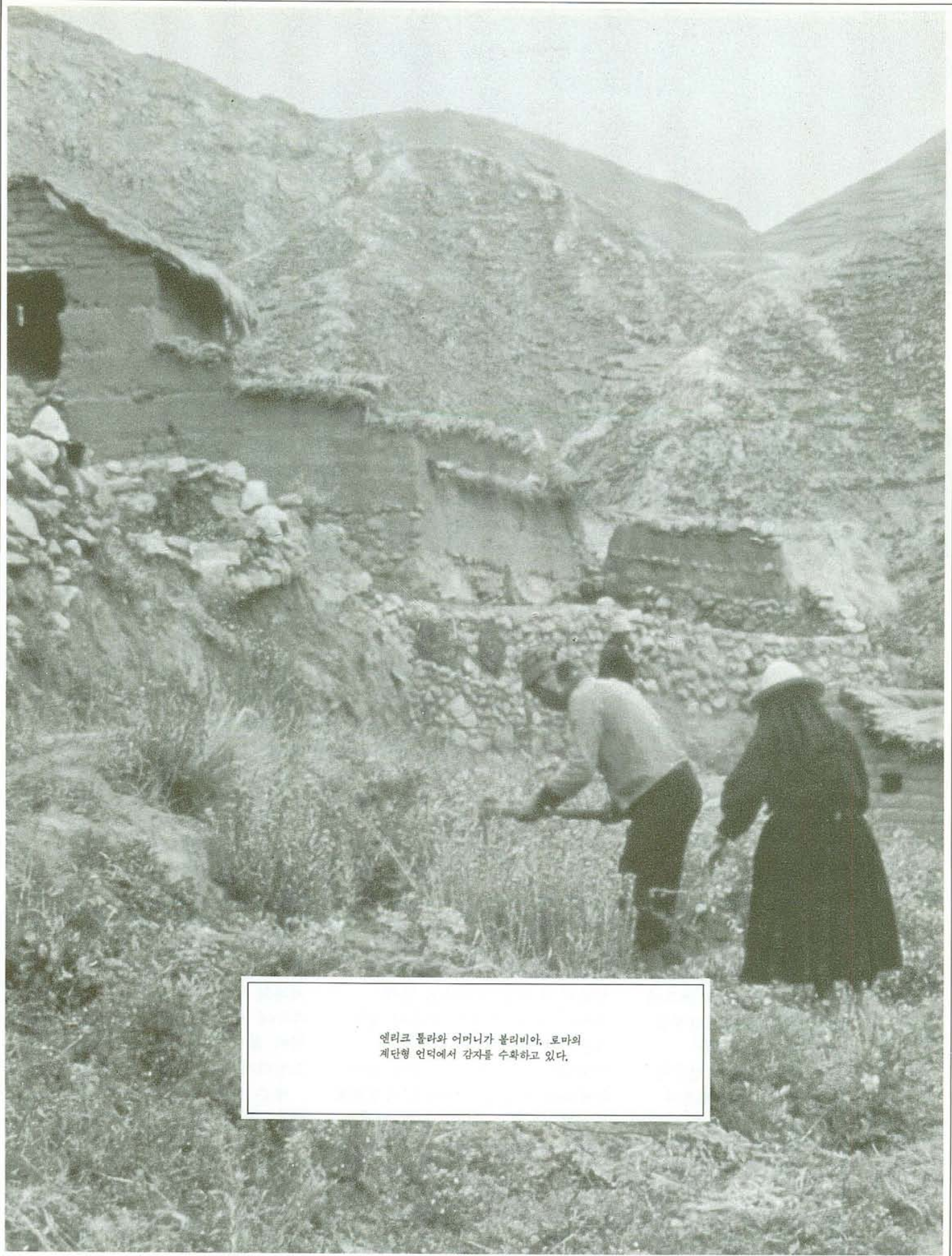
그것도 좀더 가까이 줄을 지어 심는다. 그 결과 일 헥타아르 당 5,500 킬로그램의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수확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년 전만 해도 홈베르토 가족이 닭을 키워서 시장에 팔려면 일년이나 걸렸다. 지금은 좀더 균형이 잘 잡힌 사료를 주어서 이전의 사료의 십분의 일만 사서 팔 주 만에 닭을 길러낸다.

오늘날 카나르테 가족은 영양 공급 상태가 훨씬 더 좋다. 그들은 닭과 계란을 더 많이 먹을 뿐 아니라 옥수수로 번 돈으로 쌀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의 식사에는 그들이 경작하는 작은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의 생활은 빈약했다.

이년 전만 해도 홈베르토 카나르테는 옥수수와 땅콩만 심고 있었다. 오늘 날 그는 대두콩과 채소도 심고 있다. 그는 아직도 손으로 밭을 갈고 낮으로 잡초를 베고 있지만 지금은 잡종 개량 옥수수를 심고





엔리크 톨라와 어머니가 볼리비아, 로마의  
계단형 언덕에서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알베르토 톨라가 벤슨 연구소에서 훈련받기 위하여 볼리비아로부터 왔다. 연구소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여 감자가 성장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다.

뜰에서 나오는 채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카나르테 가족의 추수는 지난 수년 동안에 세 배로 늘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을까? 벤슨 연구소는 그것을 소규모 농업이라고 한다. 이년 전에 이 연구소 직원이 포토비조에서 두 지역에 농사를 지으며 농부와 지역 농업 부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영농이 더욱 생산적이 되게 하는 기술을 가르쳤다. 작년에 그 기술을 배운 롬베르토와 다른 여섯 명의 농부는 수확을 세 배로 늘렸다.

벤슨 연구소는 1976년부터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있는 본부에서 조그만 땅을 가지고 최대한도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영농법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해왔다. 세계 농부의 30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1.25 헥타아르 이하의 땅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 책임자인 라렌 알로빈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농장 폭물과 작은 동물을 올바른

비율로 키우면 1.25 헥타아르의 농지로 일곱 명의 가족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조건에서는 우리 방식으로 현찰 수입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에콰도르의 프로그램 이외에 멕시코, 볼리비아, 칠레, 과테말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하는 단계에 와 있다.

소규모 농업의 밑바닥에 있는 사고 방식은 지구의 자원은 그 주민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십억 남짓한 전 세계의 식량 생산자들은 육 헥타아르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땅의 많은 부분이 잘못 사용되어 파괴될 때 비극적인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 결과 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적절하게 부양할 수 없게 된다. 그중 일부는 도시로 달아나서 자기 식량을 다른 사람이 생산하도록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인구에게 식량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계 기아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초”대형 식물이나 동물의 개발과 함께 과학적인 연구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미국과 기타 선진국이 이미 전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자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 세상으로 식량을 수송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든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충분히 있는 국가가 빈곤한 나라를 도와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인도주의적인 기관의 구조 노력이 수많은 곡식을 부두에 쌓아 놓는 것으로 끝나고 말며 굶주린 사람에게 결코 식량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벤슨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개인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시작되는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 벤슨 대관장은 농촌 가정 출신으로서 팔

년 동안 미국의 농무성 장관으로 봉사하도록 요청받기 전에 지역, 주, 전국 단위의 농촌 조직에서 봉사하였다. 벤슨 대관장은 세계에서 자기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 가운데 미국의 농업을 하나의 귀감으로 바라보는 국가가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우리가 그들에게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식량을 준 때가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연구소는 가족의 자립이라는 기본 철학을 지향하고 있다. 로빈슨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자기가 생산하는 식량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 체제에 생활 필수품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벤슨 연구소에서 채택한 방식은 선진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농업 원리와 기술을 사용한다. 에콰도르에서는 파종 거리, 종자 선택, 거름 주기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가르친 결과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레온 페브레스 코데로 대통령은 벤슨 방식을 전국적으로 가르치도록 요청했다.

벤슨 연구소는 어떤 나라에서든지 한 가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근처에 깔린 문제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우선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본다. 벤슨 연구소를 위하여 평가 제도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 브리감 영 대학교 식품 공학 및 영양과의 테드 페어차일드는 “수도가 오염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을 더 잘 먹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현재의 생활 수준을 철저히 조사한다. 주민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느 수준인가? 영양 실조는 얼마나 되나? 현지의 식사는 균형이 잘 잡혀 있나? 식수는 깨끗하고 충분한가? 위생

문제는 어떤 것이 있나? 기생충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파테말라의 레탈롤루에서 영아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이런 평가 과정이었다. 영양 학자들은 땅위로 바로 놓는 난로는 식품 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기에 충분한 온도에서 요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좀 위치가 높은 난로를 설치하라고 가르쳤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설사병에 의한 영아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런 평가가 끝나면 제 이단계 개입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연구소 전문가들은 현지 식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고 그런 식품에 의거하여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계획하고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는 공급이 불충분한 영양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식사 안에 이미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사의 모든 성분이 다 들어 있다. 그 지역에 낫선 곡식이나 단백질 원을 도입해야 할 경우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 따름이다.

제 삼단계에서는 소규모 농업 체제의 모든 기본 사항이 운용된다. 첫째로 농부는 균형잡힌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하여 각각의 농작물을 정확하게 얼마나 재배해야 하는지 또 작은 동물을 얼마나 많이 키워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방식을 소규모 농업에 적용하게 되면 농업의 30퍼센트는 동물과 인간에게 칼로리 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곡식-옥수수, 밀, 쌀 등을 심는다. 사람을 위한 저장 가능 식물성 단백질은 마른 콩, 편두콩 및 기타 콩과 식물에서 얻게 되는데 이것은 경작지의 10퍼센트를 점유한다.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채소를 심은 2퍼센트의 땅으로부터 얻는다. 약 40퍼센트는 대두콩이나 광저기 등 동물을 먹이기 위한 농작물에 할당하며 10퍼센트는 알팔파나 클로버 등 가축용 사료 작물, 나머지 8퍼센트는 현금을 벌기 위한 작물을 키우는 데

활용한다.

현지에서 가장 효율성이 좋은 작은 동물을 선택한다. 두 마리의 낙농용 염소, 매달 잡는 열두 마리의 육식용 닭, 열두 마리의 산란용 닭이 훌륭한 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염소는 일년에 약 1500리터의 우유와 그 새끼로부터 나오는 약 50kg의 육류를 제공할 것이다. 닭은 연 2800개의 계란과 약 13kg의 육류를 제공할 것이다. 원한다면 육류용 닭은 연 180kg의 육류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배설물은 훌륭한 천연 거름이 된다. 폴 존스톤 박사가 그런 동물 배합 방식을 개발한 브리감 영 대학교 축산학과 팀을 지도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식물과 동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의 해변에 사는 농부들은 닭의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고기를 키울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닭 대신에 모르모트나 쥐로 대치할 수 있다. 에콰도르의 포토비에조에서는 산란용 닭과 육식용 닭과 염소가 육류와 젖을 생산해 준다.

또 농부들은 적절한 파종 거리를 알고 가축이 최대로 자랄 수 있는 사료 배합을 알아야 한다. 첫 해에는 새로운 작물이나 동물이나 기계는 일체 들어오지 않는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간단한 마분지 종이 상자 건조기는 약 팔천원 정도 밖에 안하지만 음식이 상해서 낭비되는 돈을 굉장히 줄여준다. 구천원 정도 들어서 태양열 오븐을 사면 정말로 싸게 사는 셈이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면 농부들이 땀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벤슨 연구소에서 개발한 태양열 오븐과 건조기는 둘다 현재 이디오피아와 중공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만 삼천원 만 들이면 낡은 자전거 부속으로 그라인더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어떤 그라인더는 자전거를

그라인더 장치에 연결시킴으로써 필요한 동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의 제 이차 연도에는 농부들이 첫 해의 수확에서 생긴 돈으로 벤슨 연구소에서 설계하고 실험한 간단한 도구를 사게 된다. 소형 트랙터를 사면 거기에 부착된 농사 기구를 선택하여 농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다. 풍력 관개와 전력도 생산성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비싸지 않은 발명품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깡통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고안했는데 곧 2만 3천원 이하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소의 부책임자인 리차드 브림홀은 이렇게 말한다.

“프로그램이 현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소규모 영농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정해지는 십억 인구의 생활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혁명이다. 이것이 어떻게 퍼지고 있나? 현재 이 연구소에는 두 명의 책임자와 두 명의 행정가가 온 시간을 다 바쳐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에는 전 세계적으로 천 오백 명의 준회원과 자원 봉사자가 있다. 그들은 영농 과학자, 영양 학자, 과수원 주인, 농부, 의사, 변호사, 심지어는 배우와 필름 제조업자까지 있으며 모두 이 연구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간을 바치고 있다.

비와이유 대학원생 두 사람이 포토비조의 여섯 가족과 훌베르도 카나르테에게 좀더 생산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말라키아스 플로레스는 멕시코의 치와와로부터 온 석사 학위 준비생이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온 축산학을 전공하는 닐즈 티드웰 및 두 사람의 가족과 함께 포토비에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도와 주는 것이 기쁩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벤슨 연구소에서 온

사람들이 포토비조를 떠난 후에 이 일곱 가족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전문가를 여러 나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책임자인 로빈슨의 목표는 이 연구소를 국제적인 훈련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 농부와 과학자들이 이 소규모 영농 방식을 배우러 볼리비아, 과테말라, 리베리아, 멕시코 및 여러 나라로부터 왔다. 그러나 이 연구소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하다. 브림홀 형제는 “이 방식을 널리 보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돌아가서 고국의 국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 연구소는 또 대학원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이 방식을 보급하고 있다. 헥터 솔로리오 1983년에 멕시코에서 최고 성적으로 농학과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대학원 장학금을 포기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끝낸 다음 벤슨 연구소 및 농업 경제학과 장학금으로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브림홀 형제는 이렇게 예상한다. “이들 젊은이가 돌아가서 고국의 정부 지도자와 농업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학생을 수 백명 더 후원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이 연구소는 주로 정부, 기업, 개인 독자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이 연구소는 기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 사업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하는 말일 성도 재단이 금년에 이 연구소를 위하여 야심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소규모 영농 교재를 만드는 데도 역시 돈이 필요하다. 브림홀 형제는 이 연구소가 좀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저개발 국가의 교회 지도자 및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좀더 잘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대업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벤슨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헌신적인 태도와 상당한 위기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랑하고 기쁜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브림홀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손질이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전도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수준을 높이도록 돕는 일에서 굉장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면 좀더 행복해지고 좀더 가르치기 쉽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와 국가가 안정됩니다.”

벤슨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다양하며 온갖 기술의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다. 연구소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나 이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Benson Institute, B-49,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Utah, U.S.A. 84602.

# 사백명의 이름...다음에



## 존 비 피시

내가 만 여덟 살이 되기 몇 주 전에 우리 부친께서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다. 우리는 한 달 뒤에 유타주 세인트 조지의 새 집으로 이사갔는데 그 집은 아름다운 세인트 조지 성전의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스테이크 계보 서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전장단은 지명받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을 때는 언제나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성전에 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의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주님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었습니다. 두 형과 나는 자주 성전에 가서 침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어느 여름 날 나는 빈 깡통에 손을 심하게 베었습니다. 의사에게 내 손을 꿰매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어머니에게 애걸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붕대를 대고 반창고로 붙인 다음 가제로 싸주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는 성전의 형제님들로부터 온 것으로써

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오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의 두 형은 몹시 바빴기 때문에 내가 정규적으로 성전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침례 의식을 행한 사람들의 명단이 몹시 길어져서 수천 명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들이 주위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급히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에드와즈 형제와 나는 여러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침례 의식을 행한 다음 일을 끝냈습니다. 나는 그분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른 팔을 특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하여 한 손의 손가락이 거의 다 없었습니다. 그는 침례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내가 확인받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강철 의자에 앉는 것을 조심스럽게 도와주시곤 했습니다. 이 삼십 명의 침례가 끝나면 언제나 에드와즈 형제는 나를 내려다 보며 “피시 형제, 더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다시 수많은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가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처를 다시 싸기 위하여 욕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배고팠기 때문에 빨리 식사하고 자고 싶은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붕대를 풀게 했습니다.

먼저 가제가 떨어져 나가고 다음에 반창고가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붕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을 벤 자국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흉터나 붉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나를 끌어안으시던 것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존 비 피시는 캘리포니아 시트러스 하이츠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

# 마지막 500미터

멜빈 레비트

스티브 데이비스의 집에 이르는 마지막 500미터는 정말로 길어 보였다. 그 길은 간선 도로를 벗어나서 늪지 사이를 관통하는 개인 도로였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사실 자주 비가 내렸는데, 그 도로는 늪지의 일부가 되었다. 그 길의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면 스티브와 그의 부친이 늘 하는 것처럼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했다. 그곳은 소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상당히 아름다운 장소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장소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았다. 보통 상당한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250미터 정도를 걷는 것이 고작이다.

스티브와 그의 부친은 상당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비활동 회원이었다. 그들은 참석해야 할 교회로부터 약 4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48킬로미터에 500미터의 험한 길이 있는 것이다. 스티브 데이비스와 부친은 플로리다주 탐파베이 스테이크의 브룩스빌 워드 회원이었다. 그리고 만 십칠 세의 스티브는 한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사 정원회에 친한 친구가 많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들은 숲에서 토끼를 잡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한번은 그물로 상어를 잡은 적도 있었다.

그들은 또 소프트 볼과 농구를 같이 하기도 했다.

스티브가 비활동 회원으로 남아있을 것같이 보이기 시작할 때 스테이크 지도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름이 왔다. 스테이크 내의 아론 신권 정원회는 모두 재활동화시킬 사람을 한 사람씩 택하게 되어 있었다. 조우 베그스, 빌리 맨투스, 테니스 헌터로 이루어져 있는 스티브의 정원회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데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친한 친구를 일요일에 다시 함께 데려오고 싶어했다. 그리고 또 소프트 볼과 농구팀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그가 없어서 아쉬웠다.

스테이크에서는 각 정원회가 선택한 사람을 최소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48킬로미터의 길이 있으며 또 500미터의 험한 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그 길까지 48킬로미터를 여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집까지 500미터나 되는 진흙길을 갔다. 보통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 때때로 그들은 운에 맡기고 그 500미터를 차를 타고 가기도 했으나 땅이 건조할 때에만 그렇게 했다.

스티브는 한 동안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나 오랫동안

떠나있은 다음에 돌아가는 것은 항상 쉽지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이 점점 더 가능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항상 쉽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빌리 맨투스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하곤 한다. “정말로 악마가 우리를 대적하여 역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에 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이 늘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끝내 그의 집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때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도착했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한번은 그들이 거기에서 스티브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으나 그가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스티브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나를 그리워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오도록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 날 밤 비가 오고 지표에 진흙이 엉겼지만 그 길을 차를 타고 올라가도 될 것이라고 결정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의 판단은 옳지 못했다. 그들은 집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나오는 길에 차가 미끄러져 깊은 진흙에



빠져들었다. 스티브와 부친이 와서 도와주었다. 마침내 새벽 3시가 되었을 때에야 차를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 그 무렵 그들은 모두 불상사나운 진흙 조각같았다. 사실상 그 방문자들이 모두 너무나 더러워졌기 때문에 차로 기어올라가기 전에 그 진흙 묻은 옷을 다 벗어야 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얼굴은 진흙으로 덮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그들의 미소는 더욱 더 크게 나타났다. 그날 밤 내의만 입고 집으로 돌아간 네 젊은이는 몹시 피로했으나 매우 행복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스티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도 또 방문했다. 그들은 단지 그 500미터 때문에 정복당할 젊은이들은 아니었다.

스티브도 역시 기뻐다. 그는 그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밤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일요일에 교회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그의 부친도 함께 왔다. 처음에는 그들의 출석이 불규칙적이었으나 옛날의 참석하는 습관이 다시 형성될 때까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방문했다.

스티브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언제나 그들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아직까지 비활동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로 인하여 나의 온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500미터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며 특히 48킬로미터를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500미터가 더 있기 때문에 48킬로미터를 안 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 일을 내일 다음 주 또는 비가 오지 않을 것같은 다른 날로 미루게 된다. 그러나 스티브와 그 부친은 500미터나 더 가 준 만큼 친구들에게 늘 감사할 것이다. \*

#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Rise, Ye Saints, and Temples Enter

Jean L. Kaberry

Robert P. Manookin

단호하게 ♩ = 72-88

1.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  
 2. 승영의 계 획을 배 우 고  
 3. 위대 하신 엘 로 힘 이 여

사 랑 하 는 사 람 과 영 원 히 함 께  
 거 록 한 을 법 따 라 구 속 의 성 약  
 당 신 의 자 녀 들 이 성 전 에 가 서

거 할 수 있 게 인 봉 반 도 록 힘 쓰 세  
 지 켜 서 하 나 님 의 축 복 을 구 하 세  
 충 실 히 봉 사 할 때 축 복 부 헤 줌 소 서

(교리와 성약 109 : 13-21, 132 : 46)



# 태버내클 합창단

재닛 피터슨

매 주 일요일이면 삼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Music and the Spoken Word"에서 노래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내클에 모인다. 그들의 직업은 교사, 주부, 의사, 번역사, 광고업자, 비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각양 각색이다.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합창단에 음악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물론 개척자들이 1847년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조직했던 합창단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초기에 합창단은 템플 스퀘어의 바위리의 임시 건물에서 모임을 할 때 노래를 불렀다. 10년 후 이 합창단은 파이프 울겐이 있는 흙벽돌 예배당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1867년에 템플 스퀘어에 현재의 유명한 태버내클이 완성되었을 때 이 합창단은 영구적인 집과 영구적인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 합창단의 정규적인 주례 방송은 1929년에 시작되었다. 57년이 지난 지금 이 합창단은 방송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라디오 방송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합창단은 1986년 6월말 현재 일요일에만 2967번 방송 연주했다. 중단되는 일이 없다면 1987년 2월까지 3,000회의 방송을 하게 될 것이다. 1929년의 첫 방송 이래 이 합창단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고 저들을 영적으로 승화시켜 주었다.

매주 특히 여름 관광 시즌이 되면 수천 명이 직접 이 합창단의 연주를 보려고 태버내클을 가득 메우지만, 이 방송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또 전 세계의 미군 방송망과 라디오 방송망을 통하여 방송되기



1867년부터 이 합창단의 고향인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제롬드 오틀리 형제가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을 지휘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이 합창단의 연주를 듣는다.

레코드 앨범과 연주 여행으로 인하여 훨씬 더 많은 청중이 이 합창단의 음악을 듣는다. 레코드 앨범과 연주 여행은 합창단의 재정 형편을 돕기도 한다.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교회 기금에서 지출되지 않으며 레코드 판매, 연주료 및 후원자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이 합창단은 오십 개 이상의 레코드 앨범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사십여 년 동안 팔리고 있다. 그중 다섯 개는 각각 50만장 이상 팔림으로써 미국의 레코드 산업계로부터 황금 음반상을 받았다. 이 합창단의 가장 인기 있는 앨범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모아놓은 기쁜 성탄절로서 1백만장 이상이 팔렸다.

이 합창단의 연주는 레코드나 라디오,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뿐 아니라 직접 듣기도 한다. 이 합창단은 1893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콜럼비안 박람회에서 처음 연주 여행을 한 이래 온 세계로 여행하였다. 최근의 여행으로는 1979년과 1985년의 일본, 1955, 1973, 1982년의 유럽, 1980년의 브라질 여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합창단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널리 여행하였으며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세 번, 스포카네, 뉴욕, 몬트리올의 북미 세계 박람회 및 수많은 음악 페스티벌과 특별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다. (유침의 "500명을 움직임" 참조)

1984년 위성을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방송된 특별 프레 올림픽 게임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합창단은 "미국의 보배"로 소개되었다.

일요일의 방송이 아마 합창단의 정규 연주로서는 가장 잘 알려져 있겠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주례 활동은 아니다. 1975년부터 이 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는

제롤드 오틀리 형제는 사람들이 자주 “일요일 방송이 끝나면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라고 묻는다고 한다. 오틀리 형제는 이렇게 대답한다. “일요일 방송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연주회도 하고 취입도 하고 이런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는 보통 합창단과 관련된 일로 일주일에 육십 내지 육십오 시간을 쓴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인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와 공보 활동도 많이 하며 거의 350명이나 되는 단체와 함께 일하노라면 인사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가능한 소질을 가진 합창 단원을 심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창단은 흔히 “교회의 가장 훌륭한 선교 사업 수단”으로 일컬어진다. 오틀리 형제는 교회 인파를 통하여 “모든 면에서 교회의 대사”가 되는 것이 이 합창단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 내의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선교 사업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행하는 선교 사업에 대하여 크게 떠벌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는 가령 교회에 대하여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중화시키는 일만을 하는 경우이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좀더 덜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책임을 질 때가 흔히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선교사로서 이 합창단의 효능은 1985년 8월에 일본을 방문한 것에서 입증할 수 있다. 합창 단원들은 좀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일본어로 된 문명경을 1천부 이상 배부했다. 그뿐 아니라 합창단에 대한 소책자를 3천부 이상, 신앙개조 카드를 약 3,200장 배부했다.

일본에 있는 지역 관리자인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는 이 합창단이 방문한 두 달 동안에 “우리 합창 단원이 배부한 문명경의 직접적인 성과로써 여러 사람이



1955년 유럽 여행에서 찍은 이 사진에 불란서 파리의 두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함께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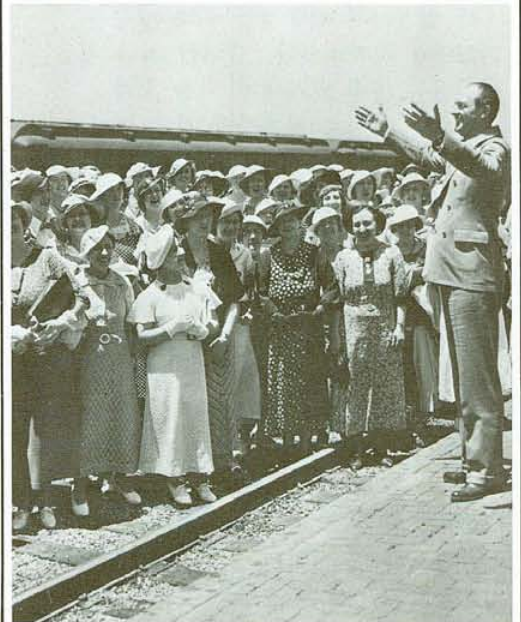
침례받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오틀리 형제가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음악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영향을 준 사람의 전체 숫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숙녀와 이야기했는데 그는 몇 달 동안 복음에 대하여 공부해 왔으나 그 연주회가 있던 바로 그날 밤에 침례받을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가장 고마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음악적으로 가치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써 1985년 연주 여행 때 마릴린 스미스는 어떤 일본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그 자매는 자신이 교회 회원이 되고 또 방금 선교 사업을 끝내게 된 것은 그 합창단이 그 전에 일본에 연주 여행했을 때 마릴린 자매가 솔로를 하는 것을 듣고 느낀 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합창 단원들은 자신이 “주님의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것을 즐긴다. 지난 10년 동안 이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있는 더피 허타도는 이렇게 회상한다. “합창단이 와싱턴 성전의 방문자 센터 헌납식에서 노래한 다음 우리는 스펀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인사할 기회가

1935년 7월에 태버내를 합창단이 캘리포니아 주 산디에고에서 열린 캘리포니아-태평양 국제 박람회에서 7일 동안 하루에 두번씩 공연하도록 초청받았다. 합창단 자매들이 솔트레이크시로부터 그들을 실어 준 기차 앞에서 앨버트 제이 사우스윅 부지위자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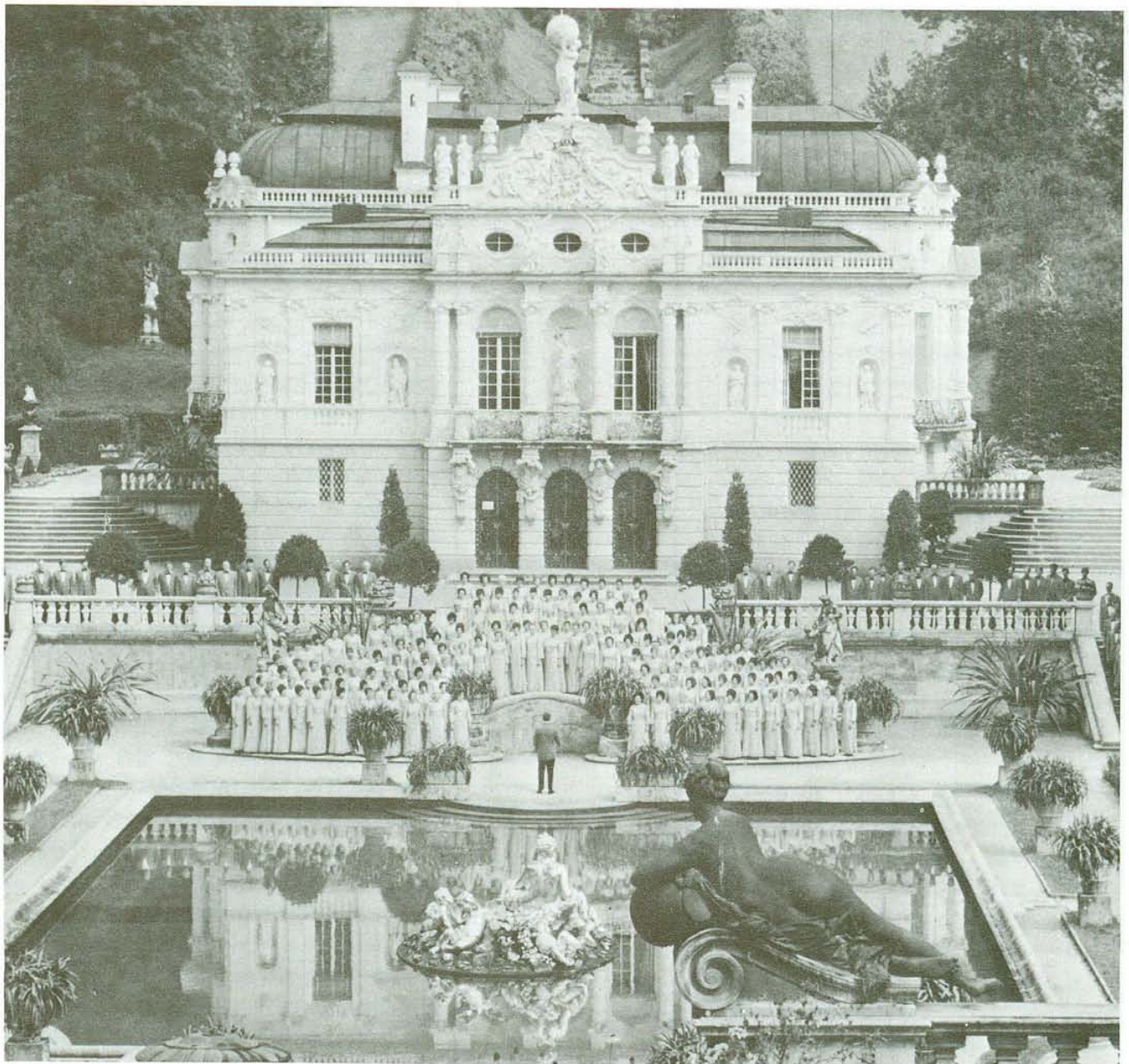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노래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렵 나는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내리는 중이었으며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합창단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킴블 대관장에게 다가갔을 때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이 합창단은 주님의 합창단이며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속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나는 대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거나 그의 조언을 청한 적도 없었는데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는 내 주변에서 줄을 서있는 다른 단원에게는 그저 악수만 하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합창단이 1973년에 유럽을 여행할 때 바바리아에 있는 루드위그 왕의 성이 멋진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바랍니다라는 말씀밖에 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관장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였으며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며 주님이 그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피와 빅터 허타도의 우정은 합창단 내에서 친분을 쌓음으로써 발전했으며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 부모 두 사람이 모두 나가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만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다행히 빅터처럼 페루에서 교회에 들어온 빅터의 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허타도 부부는



성도의 빛/1986년 8-9월호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두 부부가 합창단에 가서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할 때는 그 어머니가 두 자녀를 돌본다.

지난 12년 동안 합창단에서 노래한 멕시코 후손인 에드나 알바는 합창단이 “큰 가족과 같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합창단원들과의 교우 관계를 지극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알바 자매는 오틀리 형제에 대하여 “영성, 음악성, 훌륭한 유모어가 완전히 균형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오틀리 형제는 합창 단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합창단이 행하는 모든 멋있고 훌륭하고 감동적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4월 연차 대회와 10월 연차 대회에서 노래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며 모든 것을 대회의 영적인 흐름이라는 면에서 계속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롤드 오틀리 형제를 친구들은 제리라고 부르며 그는 대단히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 났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재능을 타고 났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의 역학 관계를 잘 아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상태로 남아 있는 방식에는 단원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자신이 300명 이상의 단원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불과할 때는 이런 큰 단체에서 책임감이 와해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름을 지적하여 부르며 질문을 하거나 복도에서 만날 때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대하여서만이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하여서도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합창단의 각 개인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300배로 되돌아온다. 미릴린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다. “오틀리 형제는 합창단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음악인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음악에 관하여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지휘솜씨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득이는 기지로 자칫하면 생기기 쉬운 긴장을 완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유모어의 가치를 알며 상황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 오틀리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함께 노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유모어가 넘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힘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큰 단체와 함께 일할 때 아주 효과적인 기술은 나 자신이 농담이나 상황의 표적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나는 단원들과 함께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웃습니다.” 사실상 “합창단은 내가 말 실수할 것을 기다리며 즐거워하고 실제로 나는 상당히 말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그들이 나를 가만히 놔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틀리 형제가 웃지 않고는 못배기는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태버내클 합창단이 유타 대학 졸업식장에서 유타 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지휘하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어떻게 된 셈인지 지휘봉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교향악단 머리 위로 날아가서 합창단 앞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연주했으며 교향악단 단원들이 그 지휘봉을 발로 차서 슬슬 내 앞으로 보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나에게 전해주려고 그것을 집어 들었으나 그 순간 자기가 연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콘서트 마스터가 집어서 내가 막 교향악단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낼 순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킁킁거렸던지 그 부분을 시작하지 못할 뻔 했습니다.

몇 주일 후에는 리허설 도중에(우리가 리허설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봅니다) 한 여자 단원이 잠깐 연습을 중단시키더니 나에게로 와서 ‘오틀리 형제님, 우리가 더 진행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합창 단원 전체를 대표하여 내게 어떤 꾸러미를 주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것은 지휘봉이 가득 담긴 화살통으로서 내가 지휘봉을 잃어버리면 재빨리 다른 것을 움켜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틀리 형제는 재능을 갖추고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임자인 리차드 피 콘디는 20년 동안 부지휘자로 봉사한 다음 18년 동안 지휘자로 봉사했다. 콘디 형제는 22년 동안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한 제이 스펜서 콘월을 뒤이었다.

합창단에서 뺄 수 없는 사람이 오르가니스트이다. 현재 로버트 컨디크, 존 롱히스트, 클레이 크리스찬슨이 오르간 반주자이다. 독일 태생의 오르가니스트인 알렉산더 슈라이너는 1977년에 은퇴할 때까지 53년 동안 태버내클 합창단



오르가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었다.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대관장단과 함께 연례 성탄절 노년의 밤에서 노래하든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래하든지, 비종교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석하든지,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그 음악에 잘 훈련된 소리와 수 없이 리허설을 거친 합창곡 이상의 것을 부여한다. 진실한 "주님의 합창단"에서 복음에 대한 300명의 간증의 영이 음악적으로 단합되기 때문에 수백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 500명을 움직임

500명이나 되는 합창단 부대가 어떻게 솔트레이크시로부터 유럽, 중앙 아메리카, 일본 등으로 움직일까.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웬델 엠 스무트 합창단장과 유델 이 포울센 사업 책임자가 주의깊게 계획한다. 보통 연주 여행 2년 전에 계획을 시작한다. 그러나 1985년에 일본으로 여행할 때는 사전 통보 기간이 짧았으므로 이 합창단이 준비하는데 1년 반 밖에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팔월은 항공 산업에 있어서 바쁜 계절이므로 합창단이 솔트레이크시로부터 오사카까지 전세 비행기를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 서해안의 여러 도시까지 4대의 작기 다른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가서 3대의 작기 다른 비행기를 타고 동경을 경유하여 오사카까지 갔다. 일단 300명의 합창 단원과 또 같이 온 배우자(그들은 자비 부담임), 관리진 및 기술진이 마침내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97개의 호텔방이 필요했다. 포울센 형제의 말에 의하면 1천개나 되는 합창 단원들의 짐꾸러미가 여행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상세한 계획과 사전 연습을 통하여 짐이 각각 해당 합창 단원의 방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정확한 방식을 개발했다. 그는 단원들이 특별한 여행을 하고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더 많은 기회를 기뻐하는 것이 이 모든 준비와 노력을 더욱 더 보람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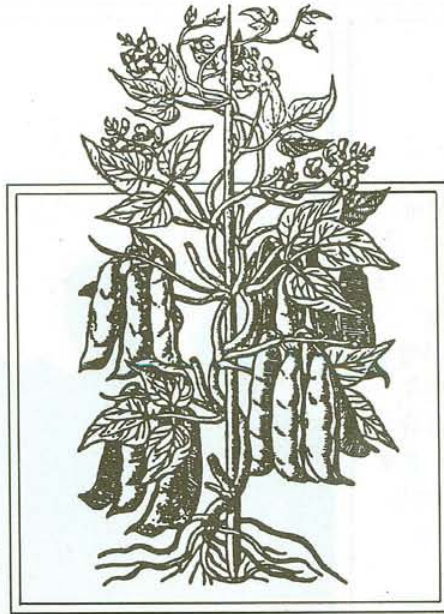
1985년에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일부 합창단원들이 전통적인 일본 의상을 입고 보고 있다.

1985년 오사카에서는 청중이 합창단을 직접 볼 뿐 아니라 이 리허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실제보다 더 큰 비디오 스크린에서도 보았다.



# 바난 다스 : 가나에서 복음을 찾음

로리 윌리엄즈 소우비



바난 다스같은 사람은 작은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에서는 드문 사람이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교회가 비교적 새로운 나라에서의 말일성도이기도하다. 그는 원래 유기 화학 교수로서 가나의 케이프 코스트 대학교 부총장이다.

개종한 지 약 육년 되는 다스 형제는 이 중앙 아프리카 국가의 하늘에 성전의 뾰족한 탑이 보이고 수많은 국민이 교회에 가입하는 날을 꿈꾸고 있다. 가나에는 이미 약 2,000여 명의 교회 회원이 있으며 매주 50여 명이나 침례받고 있다. 그는 “교회가 우리 국민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라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바난은 어린 소년 시절에 감리 교회에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전부 반복해서 암송할 수 있을 때가 흔히 있었다. 곧 그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신부님”으로 통하게 되었다. 해답을 받지 못한 의문이 많이 생겨 불만스러워진 그는 비공식적인 기독교 성경 연맹으로 갔으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그에게 상당히 혼란을 주는 교리였다. 다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

바난 형제는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 단체로부터 나와서 다른 종교 단체인 형제회에 들어갔다. 그 단체는 유기 화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공부하는 팔년 동안 그에게 필요한 영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다스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 형제회에서는 술, 담배, 부도덕을 금하고 요셉 스미스의 경험과 비슷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 가나로

돌아왔으며 케이프 코스트 대학교의 화학 교수가 되었다. 그 후 십년 동안에 학술 연구를 하고 결혼하여 가족을 가졌으며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그는 빌리 존슨 목사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는 우연히 물문경을 얻게 되어 정식으로 권능을 받지도 않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시작했다. 바난은 그의 교회에 한 번 참석해 보았으나 예배의 일부가 되어있는 토인의 북소리와 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팔년 후에 빌리 존슨이 다스 형제에게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복음 교리(PBIC0245KO)를 주면서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최근에 이 지역에 교회를 조직했으며 이번에는 신권의 기초 위에 세웠다는 소식을 알려 주었다. 존슨 형제는 이미 침례를 받았으며 나중에 첫 지방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바난은 이 새 종교를 한 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비록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찬송가이지만 표준대로 하는 말일성도 성찬식에 참석했다. 그는 복음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바난 다슨이(왼쪽에서 둘째) 아내와 여섯 자녀와 함께 있는 모습.

마침내 자기가 찾던 교회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 침례받았으며 곧 여섯 자녀 가운데 네 명이 침례받고 몇 주 이내에 부인 헨리에타도 침례받았다.

다슨 형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했으며, 아침 5시에 가족을 깨워서 기도하고 경전을 함께 읽었다. 그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얼마나 놀랍고 좋은 변화를 목격했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누이도 그것을 깨닫고 곧 교회에 가입했다. 콰메나 다슨은 지금 케이프 코스트 지부의 지부장이며 누이인 엘리자베스 콰우는 상호부조회 회장이다. 다슨 형제는 침례받은 지 몇 개월 후에 그 지부의 첫 장로 정면회 회장이 되었으며 1982년 봄에 가나 지방 부장단의 제2보좌로 부름받았다.

다슨 형제는 자기가 사회 진출에서 성공한 것은 교회 회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1981년에 대학교에서 학생 과장이

되었으며 1985년 5월에 부총장이 될 때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조직하는 것, 재능과 힘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 다른 사람과 좀더 훌륭한 관계를 갖는 기술 등을 예로 들며 “교회는 내가 좀더 효율적인 교사이자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직원을 대할 때는 사랑을 보이려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구속을 받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복음은 그의 일과 가족에게 있어서 발전을 가져다 준 이외에 또다른 유익도 가져다 주었다. “한때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으나 이제 그런 것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다슨 형제는 1983년 여름에 방문 화학 교수로서 두 달 동안 브리감 영 대학에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폴브라이트 장학금과 미 국무성 초청에 의하여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을 했으나 유타주에 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가족은 가나에 남아 있었지만 다슨 형제는 두 달 동안의 체류 기간을 활용하여 프로보 성전에서

엔도우먼트를 받았다. 그때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가족을 성전에 데리고 가지 못했지만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인봉반도록 성전에 데려갈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다슨 부부와 열 살에서 스무 살까지의 여섯 자녀는 지부에서 연극, 민속 춤, 축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옥수수, 콩, 기타 채소가 자라는 복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즐겨워한다.

다슨 형제는 동포들에게 식량과 기타 보급품이 필요한 것을 염려하여 서 아프리카(가나)의 친구라는 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것은 초 교파 조직으로서 무상 의료품을 얻어서 병원, 진료소, 마을에 배급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다슨 부부는 가나에 머물러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울 계획이며 자녀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도록 희망하고 있다. \*

작가인 로리 윌리엄즈 소우비는 유타주 어메리칸 포크 워드의 주일학교 교사이다.

# 좋은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윌터 스완

나는 감독님에게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다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축복을 더 받기 위하여 선교사로 봉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년 퇴직해서 부채도 모두 갚아 버렸습니다. 나는 집에다 작고 아담한 목공소를 갖고 있었으며 노인으로서 원할 만한 연장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에게서는 한 헥타아르 반이나 되는 정원이 있고 약간의 부수입을 올려주는 벌통도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받은 이후로 여러 해 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나는 이십 년 동안 칠십인으로 봉사했으며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즐거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제사가 되어서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은 우리가 즐겨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가 복음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했으며, 내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십오 십육세 된 소년 소녀에게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뿐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다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약 일년 후에 그는 다시 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은 형제님께서 선교사로 나가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축복을 많이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축복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좋아요. 그렇지만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님의 자매님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와드에게 필요하고 형제님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선교 지역에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밤새도록 그것에 대해 곰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내가 지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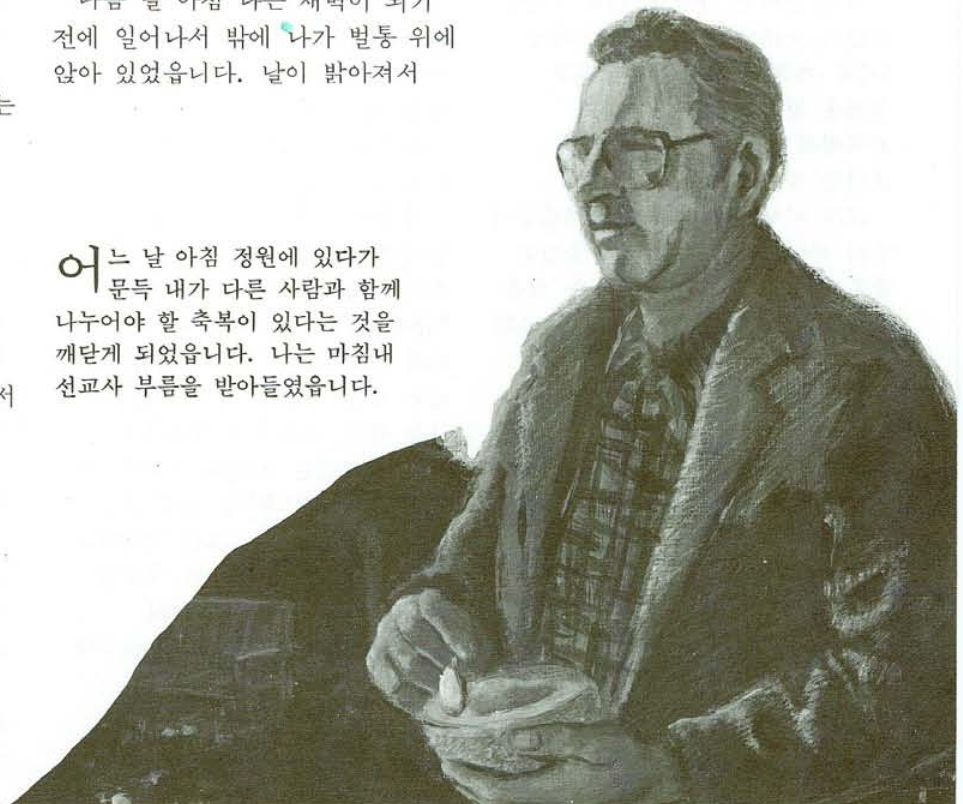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벌통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져서

어느 날 아침 정원에 있다가 문득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침 식사용으로 멜론을 따러 밭으로 갈수 있게 될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이십 오년 동안 이사갈 때마다 늘 가지고 다녔던 모든 물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내가 사용했고 일부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이십 육년 동안 교회에 다녔으며 복음 지식을 많이 얻었다. 그중 일부는 사용해서 친구들과 이웃에게 주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사람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 순간 나는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우리 선교 사업 나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독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지원서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 후 나는 아무 말도 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무렵에는 이미 와드 회원들에게 우리 결정을 다 이야기한 후였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가지 않겠다는 가장 좋은 구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나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 후 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다시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언디가 나쁜지 알기 위하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자세히 진찰하고는 내가 단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을 따름이며 마음만 편하게 가진다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대로 따랐더니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좋은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선교 지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내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 찬 것이 싫어. 나에게는 넓게 트인 땅이 더 있어야 해. 내가 감독님에게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안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완전히 부적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곳의 지부장님이 두세 번 선교사 토론을 배운 적이 있는 어떤 부부를 방문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그들에게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갔으며 삼십분도 되지 않아서 그 남편과 침례 날짜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 지역으로 도착한 지 삼주 밖에 안되었을 때 그 남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선교부장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선교 지역에서는 일년 이상이나 침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며 지난 오년 동안에 여섯명 밖에 침례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한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부 회원들 사이에 단결심과 사랑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 접촉했던 그사람의 부인을 침례주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시로부터 온 구도자 소개 카드를 받고 또 한 사람을 침례주었는데 그는 우리 지역에서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침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도록 오랫동안 주님에게 기도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 주위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으며 그 순간 자기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업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만 해도 우리는 또 다른 부부를 침례주었는데, 그들은 우리가

처음 방문한 사람의 형제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이며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신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집에 있을 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태도를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일은 우리 일생에서 겪은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보상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정말로 더 많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동안 오래 성장했던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성장했고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한 감독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축복—우리가 선교사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모든 부부가 그들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얻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들이 선교 사업을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알 수만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수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것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교성

18:15-16.) \*

# 주님을 믿음

직장, 선교 사업, 결혼, 사회 진출에 관한 결정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는

주님께서 진실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성 90 : 24).

여러분이 믿고 있는 원리에 관하여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늘 주님을 믿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이 훌륭한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의 중요한 발견과 결정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과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는 것, 학교와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장래의 직장을 선택하는 것, 영원한 동반자를 발견해서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런 중요한 발견과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네 가지 실화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거룩한 잠재력을 믿음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겠습니까?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 중학교 일학년이 다니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를 짐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소년들보다 약간 키가 컸으며 농구와 육상을 상당히 잘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됨에 따라 농구팀의 코우치가 “짐, 벤치에 앉아 있어, 너는 구기 선수가 못돼. 너무나 서투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어떤 게임에서 “안돼. 우리에게는 네가 필요없어. 거기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너는

달리지를 못해. 너는 슛을 못해. 너는 빠르지 못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짐은 코우치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농구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달리기도 그만 두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능한 한 운동을 멀리했습니다. 대학 일학년 때에는 체육 몇 과목이 필수였으나 그는 가능한 한 적게 했습니다.

열 아홉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먼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버스가 서서 승객을 내리거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달리는 버스를 타기 위하여 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짐과 동반자가 버스가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버스 정거장에서 한두 구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달리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약속을 놓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은 자신이 동반자보다 더 빨리 버스 정거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오후 짐은 의도적으로 뛰어가서야 버스를 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동반자보다 빨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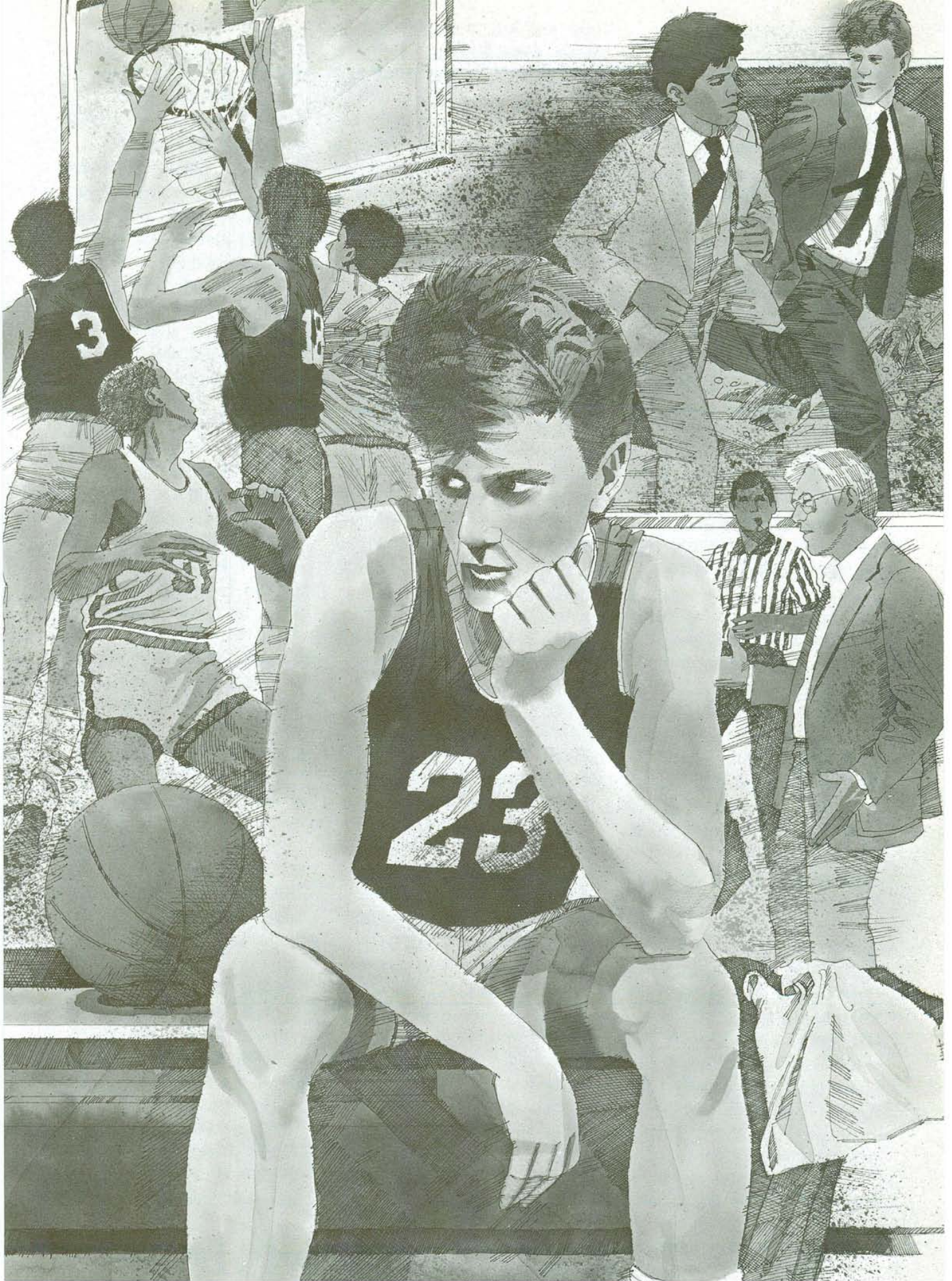
그는 자기 동반자가 자기 주에서 최고로 빠른 주자로서 여러 번 상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으며 거의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짐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은 또 달렸습니다. 짐이 이겼습니다.

갑자기 짐은 자신의 운동 선수로서의 소질을 낭비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운동에서 뛰어나게 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짐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품고 있는 다른 부정적인 태도에 대하여서도 진지하게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도 잘못된 태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와 똑같은 상태에 있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음악이나 수학에 소질이 없다거나 항상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갈 것이라고 믿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태도를 다시 평가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큰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에 대한

**짐**은 운동에서 뛰어나게 잘 할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또 그의 능력에 대하여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을 극도로 한정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잠 23: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보다 높이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이제 막 인식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은사에 도달하는 문을 열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내부에는 문자 그대로 천재가 간혀 있습니다. 다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렇지 않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짐이 진정한 자아를 선교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마 16:25 참조)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아직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동안에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 관한 이 부르심과 계명을 네게 주리니, ...안수 성임되어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아 회개를 외치며...”(교성 36:4~6)

#### 성령의 권고를 믿음

또 다른 한 젊은이의 경험을 이야기하겠는데 그의 이름을 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만 열 여덟 살때 대학교 일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평균 점수를 높이 유지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울 것같이 보이는 웅변 강의를 수강 신청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이십 오년 동안 가르치면서 최고 점수인 A 학점을 준 것은 다섯 번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빌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는 다른 반으로 옮기려 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에 B, B 마이너스, 가끔 B 플러스를 받았으나 A는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이윽고 학기 중 마지막 연설 발표 시간이 왔으며 이 발표가 최종 학점의 절반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논란이 많은 주제를 하나 택하여 이십 오 분 동안 한쪽 입장을 옹호하는 연설을 하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반원은 그 연설을 구두로 비판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비평문을 써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빌은 자기의 연설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주제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를 찾고 있다면 물문경을 택하라.”

빌은 그 반에서 우리 교회 회원은 자기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신교의 열렬한 신자인 그의 선생님은 그 학기 내내 성경을 인용했으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계시임을 확신한다는 것을 여러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빌이 연설하는 날 자기 주제를 발표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무도—특히 선생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기 바라며 물문경에 관하여 역사적 및 학문적인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쯤 갔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책에 관하여 역사적인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학점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물문경은 참되며 그들은 모두 그것을 알아야 해.”

그는 스테이크 선교사로 일할 때 구도자를 가르치면서 배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간증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맺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공박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반원들로부터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반원들에게 공박하도록 했으나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선생님은 “빌, 가서 앉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문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너댓 명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거의 믿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의 연설에 대하여 특별히 비판적이었던 어떤 학생은 “정말로 너의 교회에 대하여 좀더 알고 싶다.”고 썼습니다. 빌은 기쁘게도 그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령 그 과목에서 낙제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하여 축복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 18:9)라고 명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신앙을 갖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롬 1:16)

혹시 여러분이 아직 세상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젊은이처럼 세상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신앙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고를 따른다면 모든 결정 특히 결혼, 선교 사업, 학교, 사회 진출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 계명을 지킴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계명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데 그를 프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열 한 살이었을 때 프레드는 신문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도 신문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의 비활동 회원인 그 신문 총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드, 너는 그동안 너무나 충성스럽고 또 신문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렸으므로 너를 이 신문 배달 부총무로 지명하겠다. 너는 우리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신문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될거야. 학교 수업을 마친 다음 네 신문 배달을 끝내고 사무실에 와서 두세 시간 동안 일할 수 있게 될거야. 고객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며 숙제를 할 수 있게 될거야. 무엇보다도 이것은 너에게 굉장한 일 자리다 그리고 네 봉급은 세 배가 될거야.”

프레드는 기뻐합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십대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던 시기에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정말로 축복해 주신다.” 그는 자기가 언제나 십일조를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권을 존중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년 반 동안 성공적으로 일한 다음 그 신문 총무인 조지가 와서 또 다른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프레드, 너도 알다시피 이제부터 일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일요일 신문 배달을 시작한다. 너는 일요일 아침에 신문을 배달할 뿐 아니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해. 그리고 봉급도 30퍼센트 올려 준다.

프레드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자 총무는 즉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가 물론인 줄 알고 있어. 이 일을 더 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네가 이 일을 말지 않는다면 너의 신문 배달일과 평일에 하는 일도 모두 잃게 될거야. 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신문 배달 소년이 많이 있어.”

프레드는 그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일요일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라고 기도했으며,

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자 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그 답을 모르지만 그 대답을 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을 안다.”라고 감독님도 부친과 똑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프레드는 꼬박 이틀 동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오후에 다른 와드의 성찬식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무가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물었을 때 프레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좋아하며 신문 배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총무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해고야. 토요일에 마지막 봉급을 받아가. 은혜도 모르는 젊은이 같으니라구!”

며칠 동안 그 총무는 프레드에게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나 하는 의문을 가질 때마다 그 응답은 똑같았습니다. “일요일에 일해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일하면 안돼.”

프레드는 마지막 봉급을 받으러 갔을 때 총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드, 날 용서해 주게. 내가 나빴어. 네 신앙을 어기게 하면 안되는 걸 그랬어. 일요일에 일을 더 하려고 하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를 한 사람 찾아냈어. 너는 계속해서 일해도 좋아. 그렇게 하겠나?”

프레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총무는 또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네 봉급에 일요일에 일하면 더 주려고 했던 그 30퍼센트가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될거야.”

그날 집으로 오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야.”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물론 봉급이 인상되는 보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년 뒤 프레드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 성찬식에서 말씀하면서 회중 가운데 그 총무가 있는 것을 보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몇 달 전만해도 그 총무가 이십 육년 동안 비활동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와드에서 충실한 대제사 그룹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더 기뻐합니다.

직장, 선교 사업, 결혼, 사회 진출에 관한 결정은 정말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는 주님께서 진실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성 90 : 24). 여러분이 믿고 있는 원리에 관하여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늘 주님을 믿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킬 마지막으로도 또 다른 어떤 젊은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 사람을 존이라고 합시다. 존은 먼 땅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에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소화기 계통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었으므로 선교부장은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낼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걷고 있는데 발에 너무나 심한 통증을 느껴 동반자와 함께 약속했던 토론 약속 장소까지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습기 많은 날씨 때문에 존이 관절염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며칠 동안 발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신권 축복도 받았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존은 당시에 그 지역 선교사 지도자였으며 그 지역 선교사들은 한 동안 침례가 전혀 없었던 그 지역에서 막 침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주님께서 자기 구역이 이제 막 성공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을 그가 낭비하도록 놔두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 주일이 가고, 이 주일, 삼 주일, 일 개월이 지났으나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로 시설이 좀더 나온 수도로 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본 결과 발의 뼈 하나가 골절되어 제 위치를 벗어나 굳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은 그 뼈를 올바르게 융합시켜 줄 것으로 생각되는 특별한 전기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몇 가지 의로 문제와 함께 그를 좀 낙담시켰습니다. 다시 그를 집으로 보내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삼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발에 전혀 통증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발로 가만히 서 보고 그 다음에는 약간 발을 굴러 보고는 완전히 나은 상태로 동반자와 함께 일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뻐하며 즉시 선교 지역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시작하여 그가 아픈 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꾸짖는 글이 몇 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사의 친구인 다른 선교사가 집으로 편지한 것을 보고 그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사랑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너를 위하여 금식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 기도 명부에 너의 이름을 올려 놓았다. 이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일기를 본 결과 자기가 나아서 일어난 날이 바로 그 편지가 써지던 날 즉 그의 가족이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와 신앙을 발휘하기 시작한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일만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권세가 실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역경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투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큰 문제와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에게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의 문을 열어 주고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머물러 있고 주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1. 하루 종일 끊임없이 계시를 구하며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니이 9:52 참조)
2. 설령 몇 분간이라도 매일 그분의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다음 세상에 관하여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3. 신앙을 행사하고 성령에 속하는 것을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모두 다 여러분에게 적합하게 더해질 것입니다.
4.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회개하거나 생활을 바꾸면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구하십시오.
5.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주님의 양을 먹이십시오.

6.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번영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양육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나니,” (니일 17:3)

나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 지상에서 여러분의 신성한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의 결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84년 5월 29일에 행하신 브리검 영 대학교 예배 말씀)

# 장막 저편으로부터 오는 위안

오웬씨 베니온

나는 그 길고 긴 밤을 육아실 유리창 옆에서 외로이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육아실 안에는 자그만 사내 아이가 숨을 쉬기 위하여 애처롭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우리는 우리 목장에서 병원까지 거의 160킬로미터를 질주해 왔습니다. 그 아기는 우리가 도착한 직후에 태어났는데 육주 조산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같이 보였지만 의사는 그의 폐가 성장이 늦어서 숨을 쉬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아이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축복하는 동안에 언젠가는 그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성령이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린 마태는 그의 어머니가 육아실로 그를 보러 올 수 있을 때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방을 떠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그를 한 번 볼 수 있을 때까지 천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으므로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비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무덤가에서 예배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 동안 기다렸던 아기를 잃은 공허감은 그녀에게는 몹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음 아기, 아주 건강하고 훌륭한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사실상 다시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많은 자녀를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태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의 일부라는 느낌을 키워나갔습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가장 큰 아이는 마태를 특별히 가까이 느꼈으며 때로는 그가 옆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번은 폭풍을 뚫고 직장으로 가는 동안 그가 같이 있어서 지켜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잠을 깨어 침대 옆에 한 청년이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그가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으며 마치 필름이 불에 타듯이 공기 속으로 “녹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두려움으로 몰았으며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게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몇 년 후에 다시 마태의 영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누이가 아기를 잃고 위로와 이해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아이다호폴즈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그 의식을

위하여 인봉실에 모였는데 그때 인봉자가 나와 신부의 어머니에게 결혼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간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증하면서 우리 큰 딸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성전 밖에 나왔을 때 딸은 내가 서서 말씀할 때 마태가 너무나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뒤에 서서 제일 나중에 그 방을 나오려고 할 때 어떤 부드러운 손길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오빠 마태였다. 그가 바로 어느 날 밤 너의 침대 곁에 서있었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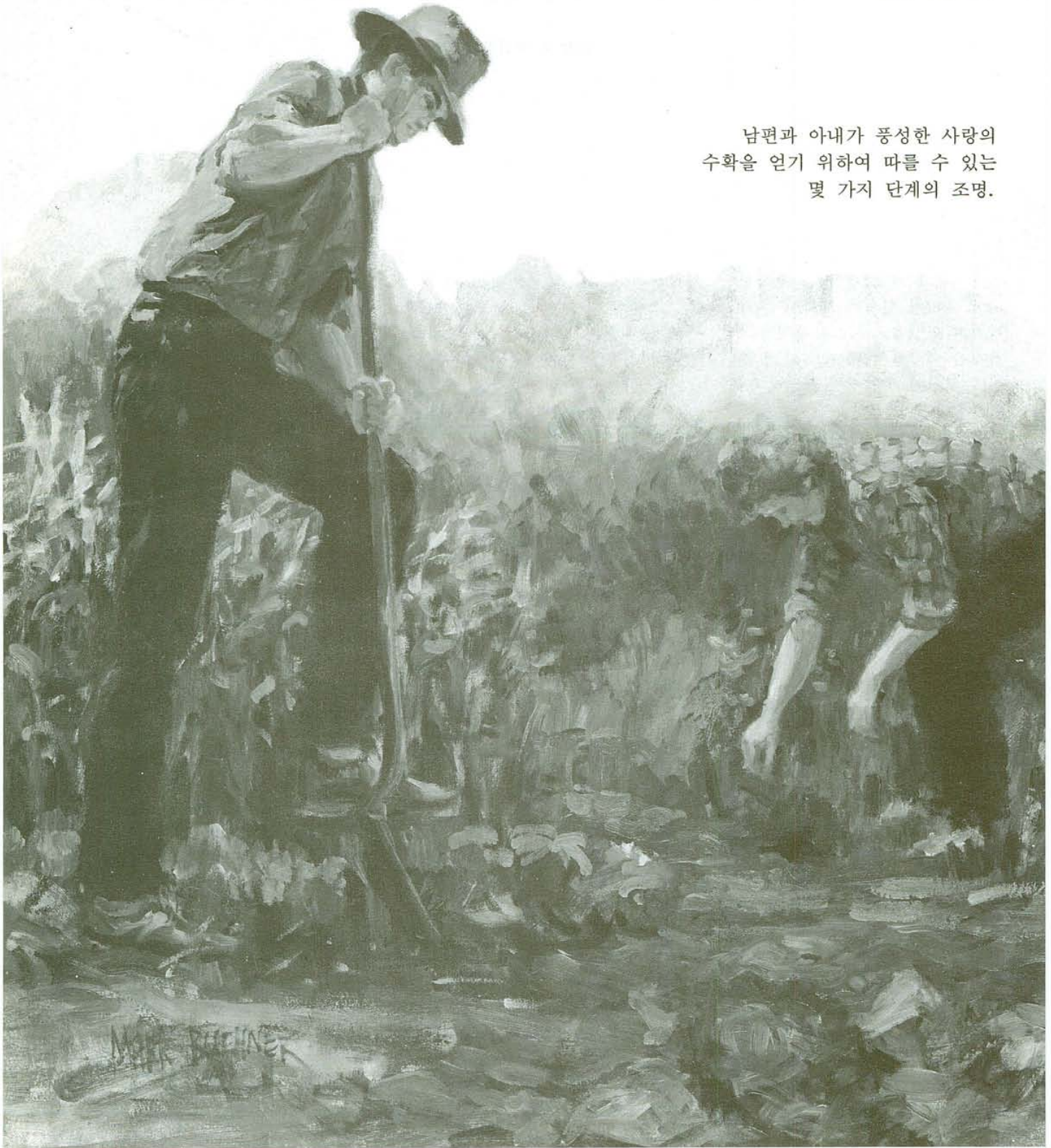
이 훌륭한 경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화평과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에게 중요하며 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 확신을 갖도록 마태가 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

오웬 시 베니온은 조플린 미주우리 스테이크, 그랜비 지부의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결혼과 수확의 법칙

로렌스 엠 배리

남편과 아내가 풍성한 사랑의  
수확을 얻기 위하여 따를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의 조명.





그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노력해 왔다. 때로는 사태가 개선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해묵은 문제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까? ”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교회에서 활동적이었고 좀 골치아프기도 하지만 소중하고 사랑스런 네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와 긴장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그들의 관계에 상당한 압력을 가했다. 최근에 그들의 의견 차이는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쉽게 일어났다. 만족할 만한 해결은 더욱 더 찾기 어려운 것 같았으며 싸움이 여러 날 계속되기도 했다.

한번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 보도록 지시받았다. 그들은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관하여 토론하고 생산적인 면에서 들어주는 것을 연습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연습을 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그들의 결혼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었으며 한 동안 사태가 개선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후 다시 분쟁에 휩싸여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전에 결혼 카운셀러로부터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그들은 이 해답받지 못한 질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좀더 나은 방법이 없나?”

이 특별한 부부의 문제가 너무나 복잡했기 때문에 한 가지 단순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었다. 문제의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인간 관계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를 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 같다. 그들의 훌륭한 점은 남편과

아내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결코 파헤치지 못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공한 부부들은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을 여러 가지 개발했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생산적인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수확의 법칙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고 말했을 때 그는 영원한 한 가지 법칙을 말했다. 씨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비유는 고대의 선지자들과 주님 자신이 즐겨 쓰시는 비유이다. (예로서 욥 4:8; 교성 6:33 참조) 이 수확의 법칙은 행위와 그 결과를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로 연결시키며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특히 결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밭에서 자라는 꽃, 과일, 채소 처럼 우리의 결혼도 우리가 뿌린 씨앗의 본성을 반영한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틀어 사랑과 화목의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순간에서나 우리는 우리가 뿌린 모든 것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씨앗을 다시 심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이며 처음에 한번 심는 것으로서 사시사철의 수확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인식할 때 결혼 생활이 성공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매일매일을 심고 가꾸고 잡초를 제거해 주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하루를 빠뜨리면 일주일 또는 일년을 빠뜨릴 수 있으며 곧 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밭과 마찬가지로 등한시했던 결혼도 다시 심고 세심하게 돌보고 큰 인내심을 지닐

때 개혁될 수 있다.

#### 고독한 추수?

만일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을 심거나 잡초를 제거하거나 결혼을 가꾸는 데 관심이 없거나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떤 까닭인지 복음 원리를 결혼에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선 자신을 변화시키므로써 자신의 결혼 생활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일지 모르지만 분노를 분노로 갚는 것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꿈으로써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남편과 아내가 증거할 수 있다.

#### 훌륭한 씨앗

좋은 수확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씨앗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1.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 슬픈 사실은 너무나 많은 남편과 부인이 옛날의 천문학자들같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지식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태양과 그 외의 모든 혹성이 지구 주변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 잘못 생각했다. 나중에 눈이 뜨인 코페르니쿠스가 사실은 태양이 지구 궤도의 중심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이와 비슷하게 많은 부부가 자신, 육욕적인 것, 세상적인 안정 등과 같은 그릇된 근거 위에 자신의 생활의 중심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부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에서 구세주를 그런 노력의 동반자로 삼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 해결책이 전적으로 자신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유대를 견고히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들의 결혼이 잘 변하고 피상적인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오는 화평과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랑과 용서의 구세주의 메시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 (골 2:2)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이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첫째로 지속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었던 매일의 경전 읽기를 다시 실행했다.

둘째로 그들은 밤에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쌓았고 주님에게 소리내어 서로에 대하여 감사드리라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 배우자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감사와 겸손으로부터 생성된 더 큰 유대 관계가 쌓아졌다.

셋째로 구세주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관점에서 자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특히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깔리는 순간에 이렇게 자문했다. “주님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기 원하실까?” 그 결과 그들은 성신의 거룩한 영향력을 더욱 잘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대화가 좀더 높고 생산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하는 부부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다.

2. 겸손. 성공적인 결혼은 자신의 장점과 약점(혹은 성장 분야) 및 잠재 능력에 대한 이해력을 쌓은 겸손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안고 있다. 겸손한 사람은 “육으로 난 인간은...하나님의 적”인 타락한 세상에 살더라도 성령의 권고에 순종하고 육신으로 난 인간을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하게 될 수 있다. (모 3:19)

이런 성품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표시다. 이런 성품이 있는 곳에는 교만, 이기심, 독선, 자만이 있을 수 없다.

3. 인식. 하나님과 배우자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배우자를 알잡아보는 것은 아주 작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비하는 자기 방어, 무감각, 전반적인 적개심을 이끌고 간다.

반면에 자신이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은 배우자와 단합하기 위한 중요한 한 발걸음이다.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가 창조하신 것 특히 그가 문자 그대로 당신의 영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인 것 같다. 예술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태리 플로렌스 출신의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존경하면서 모나리자 작품을 비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아들이거나 딸인 우리 배우자를 잘못 대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4. 주는 태도.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사고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품고 인생과 결혼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행복은 주는 것으로부터 혹은 받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믿는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불행히도 배우자가 올바른 일을 하고 내 이상에 맞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지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가 대부분이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하고 자신을 앞세우는 이런 방식을 추구할 때 많은 불행이 야기된다. 이렇게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방식은 숨막히는 이기심과 경쟁의 분위기를 낳게 된다.

그러나 주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복음을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우리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또 영원히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창조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성공적인 결혼에서는 부부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사람 다 무정한 “추수자”가 아니라 결혼을 “살찌우고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확고한 결심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 다 유익을 얻는다.

사실상 “받으려는 사람”은 주지도 받지도 않지만 “주는 사람”은 두 가지를 다 달성한다.

5. 함께 일하려는 열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결혼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완성시키려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경제적인 불안정 등과 같은 외적인 압력이거나 의견 차이 등과 같은 내적인 갈등이거나 그들의 관계에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두 사람이 같은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일방적인 승리가 궁극적으로는 공동 파멸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결혼 전투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진실로 “우리”는 부부애를 키워 주고 “나”는 부부애를 죽인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손쉬운 모면 방법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주 비효과적인 방법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긴장된 순간,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아내를 탓하고 싶은 타고난 경향이 나타나려고 하면 마음 속으로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책임이 있으며 분노 등과 같은 내적인 감정은 자기 자신의 사고 과정의 결과이며 부인의 행동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짐하곤 했다. 그는 그런 객관적인 견해를 가짐으로써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이기적인 반응의 방해받지 않고 해결책이 더 쉽게 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부부는 그들의 결혼을 위하여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선물이 되게 하라.” 그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새롭고 창의적인 대화 방식을 발견하려고 늘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들은 적은 노력을 통해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나는 당신을 염려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염려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관계에 해를 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해로운 요소에 대하여 공동의 전쟁을 선포했다.

6. **봉사.** 사랑이라는 것을 완전히 하나의 느낌, 내적인 따뜻한 느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실재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때가 너무 많다. 나는 그런 감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난 사랑에 찬 행동의 결과로 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명사로보다는 동사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랑에 찬 행동과 봉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반영한다.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을 보인다”는 것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 것이다. (요 14:15) 이것을 보면 주님이 단지 사랑의 감정뿐 아니라 그것을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우리

성도의 빛/1986년 8-9월호

결혼에서도 여기에 못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결혼에 있어서의 봉사는 중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세주께서는 참된 지도력은 타인에 대한 봉사에 달려 있다고 가르쳤다. (마 20:26-27 참조) 주님의 헌신적인 제자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결혼 관계에 관하여 훈계하면서 이 면에 있어서 특히 남편들에게 강조하여 말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구세주께서 크게 희생하신 것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족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엡 5:25)

서로 섬기며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려고 조심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큰 과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남편과 이야기할 단 두 사람만의 시간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새로운 소파를 사 주는 것은 별로 가치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부인도 충고해 주는 것이 지지해주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아까 처음에 언급한 부부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다는 관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조용히 또 의식적으로 이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의미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교성 20:77 참조) 우리에게 종의 역할을 예수님보다 더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그들은 봉사하려는 열의와 노력이 커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때만 얻을 수 있는 화평과 기쁨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실상 상대방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기 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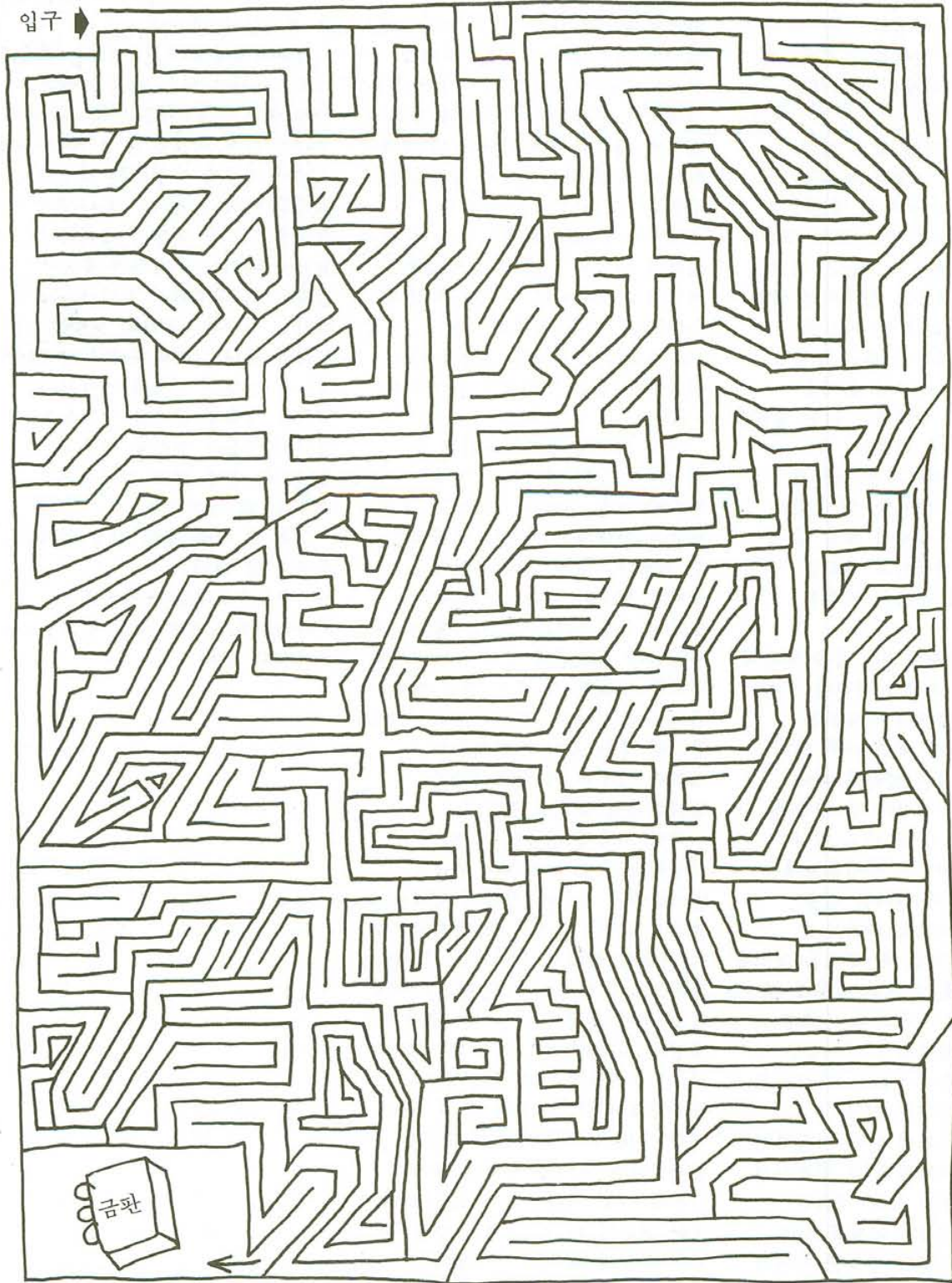
잃어버림으로써 진정으로 자기 생활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가 그들 자신의 결혼보다 더 적용하기 적합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마도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였을 것이다.

결혼이야말로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리스도같이 되는 방식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장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우선 우리 가정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심함 바가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두 영원한 질서의 원리에 의하여 존재하며 우리 결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영원한 상속과 생명의 연속을 공유할 준비를 갖추도록 영원한 결혼의 원리를 배우고 통달하는 것에 달려 있다. (교성 132:19,22 참조) \*

결혼 및 가족 문제 임상 의사인 로렌스 엠 배리는 카이제르슬로테른(독일) 군인 스테이크에서 응시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 심심풀이

금 판 찾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이름은 제이슨 스톨캐년입니다. 나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앨범 뉴멕시코 스테이크의 갤럽 제1외드에 다닙니다. 나는 열 살입니다. 나의 취미는 놀이와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는 우리 초등학교 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쓸 미로를 그림니다. 다른 어린이들이 요셉 스미스가 금판을 찾으려 도와 주는 것을 지켜 보면 재미있습니다. 나는 나바호 인디언입니다. 나에게서 일곱 살 된 꼬리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나의 이 미로를 찾아보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이슨-

#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매리 엘 데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아빠, 어디 가세요?”라고 게오르크가 물었다.

아버지는 “공작의 저택에 간다”고 말씀하였다.

“같이 가도 돼요?”

아버지는 “안돼”라고 엄하게 말씀하였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작의 저택에는 악사들이 있으며 게오르크는 그들이 연주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아버지는 음악은 바보스런 어린이에 장난으로서 어른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였다.

게오르크는 법륵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음악은 잊어야 했다. 아버지는 게오르크가 몰래 몇 시간씩 클라비에(오늘 날의 피아노의 “전신”)를 연습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다른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이센펠스에 있는 그 궁전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할레(독일, 삭소니)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을꺼야.

그는 아버지가 마차에 오르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말이 마차를 끌고 길을 내려가자 게오르크도 그 마차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마을 끝에 왔을 무렵 게오르크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마차는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게오르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마차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갑자기 마차가 멈췄다. 마부가 내려와서 소년에게 달려 와 안고는 마차로 데려갔다.

“무슨 것이냐? 일곱 살짜리 소년이 바이센펠스까지 뛰어갈 수는 없어. 오면 안된다고 말했지. 왜 말을 안 듣니? 마부와 함께 앉아도 좋아. 그러나 집에 가면 벌 받을꺼야.” 아버지가 꾸짖으셨다. 성에 도착했을 때 게오르크에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음악 소리를 따라 어떤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울개를 치고 있었다. 소년은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쁘게 들었다.

그리고는 “제가 한번 쳐봐도 됩니까?”라고 물었다.

“잠깐만이야.”

게오르크는 울개 앞에 앉아서 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 방에 가득 차는 그 아름다운 음조에 감동되었다. 그가 마지막 음을 칠 때까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너는

누구나?”라고 물었다.

소년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라고 대답했다.

“잘 치는구나. 몇 살이며 선생님은 누구냐?”

“저는 일곱 살이며 선생님은 없어요. 아버지는 제가 음악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때 게오르크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전하”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공작이었다. “제 아들놈이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요.”

공작은 “자네가 이 소년의 아버지인가?”라고 물었다. “이 소년이 음악 선생이 없다고 그러더군. 그가 음악에 굉장히 소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당장 그에게 음악 선생을 구해 주게. 그리고 이 소년이 나를 위하여 울개를 치도록 다시 데리고 오게.”

“예, 전하.”라고 아버지가 순순히 대답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게오르크는 꾸중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부친이 할레에서 가장 큰 교회의 울개 반주자로 하여금 게오르크를



가르치게 해주었으며 그는 음악으로 평생을 보낼 준비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게오르크도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희망을 존중하여 법률 학교를 나왔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은 1685년 2월 23일 할레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페라 작곡가로 시작했다. 그의 오페라는 인기가 있었으며 스물 다섯 살에 이미 유명해져 있었다. 그는 영국으로 여행하여 영국에 귀화하였으며 어머니를 만나러 잠시 할레를 방문할 때를 빼고는 여생을 영국에서 보냈다.

헨델의 음악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그는 오라토리오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은 합창단과 독창 및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성경 이야기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메시아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이다. 이 곡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음악가 뿐 아니라 아마추어 단체도 연주할 수 있다.\*



#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Grietje Rowley

Grietje Rowley

밝게

1.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클 때 까 지  
 2. 친구에게 교회 소개 하 고 행 복 한 느  
 3. 난 지금 선교사 될 수 있 네 클 때 까 지

언 제 기 다 러 도 간  
 짐 - 전 하 리 복 어 려 도 간  
 기 다 리 잠 네 나 음 의 회 복  
 나 매 일 회 홀 룡

증 - 있 으 니 복 음 친 구 와 나 누 고 싶 어  
 이 - 야 기 와 목 문 경 이 야 기 들 려 주 겠  
 한 생 활 하 면 내 가 간 증 가 진 줄 - 내 가

1. 2. 3.  
 요 2 친 간 증 가 진 줄 그 들 이 알 게 되 - 리  
 네 3 난

# 낡은 만도린

웬디 에프 카노



오랜 음악은 장중하고  
큰 조용했으며 관을 운반하는  
사람이 단순한 소나무 상자를  
가지고 들어오자 회중 위로 경건한  
침묵이 흘렀다. 그 관의 꼭대기에는  
정원의 꽃 몇 포기 아름답게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는 낡은 만도린이  
있었다. 그 만도린은 낡았지만 윤을  
내서 칩칙한 빛 속에서 희미하게  
미광을 내고 있었다. 도끼로 험하게  
베어낸 통나무 사이로 여기저기  
햇빛이 들어왔지만 깜박이는 촛불이  
그 큰 방을 더 칩칙하게 보이게  
했다.

이 험하고 거칠게 보이는 곳에서  
울개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 초기의 서부 개척 시대에는  
사치스런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차에 싣고 그 멀고 먼  
평원을 건너 온 그 작은 울개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다.

아만다는 관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낭하로 걸어들 때 마루에서  
먼지가 풀석이는 것을 보았다.  
아만다는 어머니에게 “관이 참  
작군요”라고 속삭였다.

어머니가 “증조부 할아버지가  
체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거인이셨어.”라고 말씀하셨다.

아만다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의  
질은 갈색 눈에 눈물이 고여  
쓰라렸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명랑하셔서 어디로 가시든지  
웃음이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음악을 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셨는지 모른다.

할아버지는 자주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만다야, 음악이

없으면 세상은 아주 슬프고  
쓸쓸했을거야. 음악은 내가 옛날  
나라를 떠나오기 전이나 후이나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었던단다.”

그러면 아만다는 “할아버지,  
옛날에 사시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네?”라고 청하곤  
했다. 할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는 눈에서 빛이 나곤  
하셨다. “그래. 그렇지만 너도 이  
이야기를 전에 모두 다 들었던 것을  
알지.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우리 가족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벌판에서 양을 키웠다. 그 고장은  
낮에는 물기가 축축하고 녹음이  
우거졌으나 밤에는 모든 것이  
어둠에 둘러싸였다. 나는 밤에  
혼자서 파수를 섰다. 때로는  
양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내 낡은 만도린을 갖고 다녔다. 내가 조용한 노래를 불러주면 양배가 안심하곤 했다. 내 마음도 좀 편안해졌지. 양배를 돌보는 것은 상당히 외로운 일이 될 수도 있어. 아만다야, 내 만도린이 언제나 나에게 위안을 주었어. 네가 만도린치는 법을 배운 것이 기쁘구나. 언젠가는 네가 그것을 갖기 바란다.”

오빠가 쿵 쩌르는 바람에 아만다는 현실로 돌아왔다. 매드슨 감독님이 단으로 쓰는 큰 상자 위로 올라가셔서 개회 찬송과 기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자 다시 아만다의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포장마차 뒤에서 부딪치고 다니며 바퀴 자국이 먼지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동경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다. 아만다는 두고 온 집과 친구를 그리워했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런 것같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앞에 앉아서 앞을 내다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는 “노래 한곡 부르자”고 말씀하시곤 했다. 아만다는 언제나 맨 처음 합세하곤 했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그들의 음성은 네브라스카의 따뜻한 바람에 실려가곤 했으며 그러면 곧 같이 가던 개척민들이 모두 함께 노래부르곤 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밤에 모닥불 옆에 모이는 것이었다. 마차를 당겨서 원을 만들면 대평원의 하늘에 달이 크게 보였으며 피곤하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을 부드럽게 비쳐 주었다.

아만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유타로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그때 견디어 내셨어. 그런데 왜 지금 돌아가셔야 하지?”

감독님이 말씀을 끝내고 아만다를 쳐다보셨다.

“아만다야, 우리는 모두 너와 할아버지가 같이 노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고 있다. 여기 나와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노래를 하나 불러줄 수 있겠니?”

아만다는 자기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 없이는 절대로 노래하지 못할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는 꽃 사이에 누어져 있는 만도린을 보았다.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양을 돌볼 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지금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

아만다는 천천히 일어나서 관 앞으로 갔다. 꽃 사이에서 만도린을 집어들릴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몇 사람이 격려의 표시로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아만다는 목청을

가다듬고 만도린의 선 위에 손가락을 얹고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름답게 노래가 계속되다가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으며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매드슨 감독님이 재빨리 아만다의 옆에 서셨으며 회중에게 같이 노래하도록 신호를 보내셨다. 곧 그 자그마한 통나무 교회당이 음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행복한 날 여행이 끝나는  
그 날이 오리니  
슬픈 일과 고난은 없으며  
기쁘게 살리라  
우리 생명 아낀다면  
어찌 성도들과 같이  
그 기쁜 날 바랄 소냐  
모든 것 잘 되리

아만다는 그 만도린을 잡은 채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가 아만다의 어깨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만도린이 할아버지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처럼 너의 일부분이 될 수 있어. 잘 돌보도록 해라.

아만다는 미소지었다. 그것은 이미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



# 물몬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1900—1984

**옛** 날에 물몬이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물몬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성이 없었으므로 그 소년은 물몬의 아들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앰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당시 백성의 역사 기록을 담당하도록 지명받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 백성의 역사를 편집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보통 금판 위에 새겨졌는데 그것은 금보다 더 단단한 금속에는 새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금판을 사용할 때 또 유익한 점은 녹슬지 않고 영구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몬의 아들인 물몬이 열 살 때 앰마론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매 너는 착실하며 또한 재치가 있는 아이라.

“네 나이 이십 사 세쯤 되거든 이 백성들이 행하는 일을 잘 살펴 기억해 두었다가 앰툼 땅에 있는

시므라 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이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을 주께 맡기었으니,

“보라 네가 그곳에서 니파이의 판을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에 관하여 보아 온 일을 모두 기록하라”(물 1:2~4)

그리하여 물몬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 물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앰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느니라.

“내가 열 한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따라 남방 땅 제이라헤물라로 옮겨 가니,

“건물이 온 땅을 덮었고 백성들이 심히 많아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 같았느니라.”(물 1:5~7)

이 해에(서기 322년 경) 제이라헤물라 주변의 땅에서 거기 살던 두 큰 민족 즉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물몬이 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주께서…방문하시매…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물 1:15) 물몬은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싶었으나 그들이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물몬은 크고 힘센 청년이 되었으며 니파이 군대에 소집되어 수많은 군인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물 네 살쯤 되었을 때 시므 언덕에 가서 앰마론이 명하신 대로

# 몰몬경



니파이 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기록을 시작하여 니파이인의 약함과 그들이 레이맨인과 전쟁한 것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몰몬에게 수천 년의 니파이인 역사를 한 권에 다 넣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명에 따라 자기 자신이 금으로 만든 판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그 금판을 니파이 판과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나중에 싸운 전쟁에서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를 빼고는 몰몬과 모든 니파이인이 다 죽었습니다. 그 백성의 마지막 역사를 쓴 사람은 바로 모로나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잘 보호하라고 명하셨으므로 그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로나이는 금판에 기록을 끝낸 다음 돌로 상자를 만들어서 판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모로나이는 그 거룩한 기록이 담긴 돌상자를 당시에 구모라 언덕으로 알려진

땅에 있는 구멍에 넣었습니다. 마침내 모로나이도 죽었습니다.

약 1400년이 흘렀으며 그 기록은 안전하게 구모라 언덕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록이 세상에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요셉 스미스 이세라고 하는 젊은이를 방문하도록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서 지상에 다시 돌려보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 이세는 구모라 언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뉴욕 주 서쪽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요셉 스미스를 말일의 첫 예언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로나이에게 그 신성한 기록을 그에게 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요셉은 사 년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록을 번역하여 온 세상이 다 읽도록 출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모로나이의 아버지인 몰몬이 그 대부분의 내용을 편집하였기 때문에 몰몬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 오 레슬리 스톤은 장로 별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명예 회원인 오 레슬리 스톤 장로가 4월 26일 솔트레이크시티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스톤 장로는 근년에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는 1976년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조직된 이후로 계속 회원으로 봉사해 오다 1980년 10월에 명예 회원이 되었다. 그는 그전에 십이사도 평의회 보좌로 4년간 봉사하였고 그 부름 이전에 4년간 솔트레이크 성전장으로 봉사하였다.

스톤 장로는 1903년 5월 28일 아이다호, 체이핀에서 태어났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아카데미(현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식품업 및 도매 제품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 그는 1963년 사업에서 은퇴하였다.

스톤 장로는 젊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감독,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는 성전을 짓기 전부터 공사를 하는 동안 오클랜드 성전 구역을 담당한 위원장이었다.

그는 1967년 지역 대표로 부름을 받았으며, 1년 후 솔트레이크 성전 성전장에 임명되었다. 1972년 그는 지역 대표에 재임명되었고, 그때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스톤 장로는 1924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인 도로시 커블리는 1985년 9월에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도 역시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슬하에는 다른 두 아들과 17명의 손자 손녀와 14명의 증손자 손녀가 있다.

장례식은 4월 30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어셈블리 홀에서 거행되었다. \*

## 대구 스테이크 노년의 밤

대구 스테이크는 4월 24일 수성 와드에서 키이드 더블류 윌록스 장로의 감리 하에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제임스 엠 하퍼 부산 선교부장 내외도 참석하였다.

약 200여 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박 원걸 스테이크 부장은 환영 인사를 통하여 "걸음의 폭을 넓히라 시야를 멀리 바라보라 그리고 실천하라"는 김בל 대관장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또한 윌록스 장로는 복음 선교사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방문 교사 메시지가 성도의 벼에 실리게 됨

상호부교회 본부 회장단은 1987년도 방문 교사 메시지가 1987년도 상호부교회 교재에 실리지 않고 성도의 벼에 실리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방문 교사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보다 시기 적절한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차례의 연차 대회 특집호(1월호 및 7월호)에는 방문 교사 메시지가 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두달 동안에는 방문 교사는 교회 대관장께서 하신 가장 최근의 대회 말씀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해 주어야 한다.

상호부교회 지도자는 모든 방문 교사가 매달 성도의 벼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는 그 메시지를 여러 부 복사하거나 자매들이 성도의 벼를 함께 읽도록 마련해 줄 수 있다. 지도자는 또한 자매들에게 성도의 벼를 정기 구독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음을 알게 해 줄 수 있다. \*

## "86 어린이 큰 잔치"



이민규 형제

1986년 5월 10일 문화 방송에서 개최한 "86 어린이 큰 잔치" 백일장에서 강서 스테이크 신길 와드 이 민규 형제가 동상을 받았다. 이 민규 형제는 신길 국민학교 5학년 전체에서 수석을 하는 우등생이며 초등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인 최 윤경 자매와 누나 이 선화 자매는 교회 회원으로 상호부교회 회장단과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 형제 가족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아버지의 침례를 위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

### 박 병규 장로 교회 교육 기구 대표 및 지역 대표에 성별



박 병규 장로

1986년 1월 30일 이 호남 장로의 후임으로 박 병규 장로가 새로이 교회 교육 기구 대표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1986년 2월 14일까지 부산, 광주 지역 대표로 봉사하던 한 인성 장로의 후임으로 지역 대표에 성별되었다.

따라서 박 병규 장로는 부산, 부산서, 대구, 광주, 전주 스테이크와 지역 조정예 의해 청주 스테이크를 관리하게 되었다.

박 병규 장로는 1958년 3월 23일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었다.

1967년에 광주 지부장직에, 1972년에는 광주 지방부장직에 부름을 받았다.

1973년 광주 신학 연구원에 임직되었으며, 1980년 10월 25일 광주 스테이크가 창립되면서 초대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받고 봉사했다.

1981년 7월 1일 부산 선교부장으로 부름받고 3년 동안 봉사했으며, 1984년 6월 30일 임기를 마치고 계속 광주 신학 연구원장으로 일하다가 두 개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부인인 이 영지 자매와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장남인 박 철홍 형제는 현재 서울 서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 범세계적인 청년 축제를 개최함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1986년 10월 11일에 신앙과 희망의 범세계적인 축제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결합될 것이다.

그날 아침 일찌기 워드 및 지부,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지역 지도자의 지시 하에 수많은 청년들은 각각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풍선을 날리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10월 11일 이전에 정규 주일 모임에서 청년들이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청년들이 마음 속의 소망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청년 본부 회장인 아데스 지 캡 자매는 말하고 있다. 축제를 소개하는 서신에서 캡 자매는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의 총체적인 소망이나 여러 개의 작은 소망에 관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 희망, 평화, 친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감사 혹은 청년 가치관의 중요성에 관해 쓰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풍선을 발견한 사람이 그녀와 서신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메시지에 포함시키게 된다. 메시지가 어디에서 발견될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축제의 흥미를 더해 주게 된다. 대기 상황에 따라서는 헬륨을 채운 풍선들이 6,000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능한 한 해뜰 무렵에 갖는 축제 시간은 청년를 위한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새로운 세대"라는 행사의 주제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빛이 되고 타인의 모범이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거하나 세상의 죄에 물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이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광에서 일어나십시오. 다가올 세상의 표준을 지니십시오."(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46페이지)

이 축제는 스테이크/지방부 또는 지역 수준으로 집합이 가능한 지역 뿐만 아니라 소수의 청년가 있는 지부에서도 개최될 것이다. 풍선과 헬륨을 이용할 수 없거나 풍선 띄우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청년 메시지를 한달 전에 50E.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청년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접수된 메시지는 10월 11일에 띄우기 위하여 다른 지역에 배부될 것이다.

[축제의 세부 사항은 모든 지역으로 보내지게 된다.]

축제에는 "교회의 청년은 전세계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캡 자매의 녹음된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다. \*

### 제2회 말씀대회 (대구 스테이크)

지난 4월 26일 대구 스테이크는 약 50여 명의 청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성 와드에서 말씀 대회를 가졌다.

각 와드/지부에서 선발되어 올라온 형제 자매들은 "예절, 선교 사업, 학업과 안식일"이라는 주제 하에 저마다의 숨씨를 겨루었다.

이어서 신 영석 청년 회장은 말씀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모임의 성패는 참여자의 책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한 강 경구 고등 평의원은 인사 말씀을 통하여 질서, 가치관 형성, 지도자의 자질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수성 와드의 장 윤정 자매가 "선교 사업"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차지하였다. \*









###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65기 수료



서울 성전을 뒤에 두고 함께 모인 65기 선교사 일동

### 서 스테이크 노변의 밤

서 스테이크는 4월 20일 오후 6시 30분 노랑진 와드에서 노변의 밤을 가졌다.

약 3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특별히 브리감 영 대학 하와이 분교에 재직 중인 브래샤 박사 내외가 함께한 자리였다.

한국인인 브래샤 자매는 하와이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안부와 현재 노랑진 와드에서 봉사 중인 아들이 선교사로 나오기까지의 신앙을 전하였다.

또한, 브래샤 형제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국인에 대한 자신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브래샤 형제 가족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회원들은 물론 방문하는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민간 사절과 같이 환대해 주고 있다. \*

### 청소년 표준의 밤

(서울 서 스테이크)

4월 19일 서울 서 스테이크 청남, 청녀들은 한자리에 모여 영원한 목표와 도덕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표준의 밤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남 청녀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었다.

이 모임에서 이 상태 감독은 영적 말씀을 해주었고 현세의 생활에 따라 내세를 상속 받음을 나타낸 구원의 계획이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현세 생활의 중요함을 재인식 하였다. \*

회원들의 활동 모습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65기(1986년 4월 21일~25일)를 수료한 20명의 선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임지에서 각각 봉사중이다.

팔호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다음—

- 이 용주 장로(충장 와드)—서울 서 선교부
- 류 시옥 자매(봉천 와드)—서울 선교부
- 이 덕균 장로(홍제 지부)—서울 선교부
- 이 중우 장로(성남 중앙 지부)—서울 서 선교부
- 김 정기 장로(충장 와드)—서울 서 선교부
- 이 태건 장로(전주 지부)—서울 서 선교부
- 최 남현 장로(이리 지부)—서울 서 선교부
- 박 형준 장로(충장 와드)—서울 선교부
- 서 원만 장로(충정 와드)—서울

- 선교부
- 유 형선 장로(삼청 와드)—부산 선교부
- 진 현 자매(신당 와드)—부산 선교부
- 남 선택 장로(신정 와드)—서울 선교부
- 한 선희 자매(충장 와드)—서울 서 선교부
- 원 향희 자매(풍향 와드)—서울 서 선교부
- 이 인주 장로(정주 지부)—서울 서 선교부
- 추 동수 장로(신정 와드)—서울 서 선교부
- 이 경하 자매(마포 와드)—서울 선교부
- 염 순섭 장로(충정 와드)—서울 선교부
- 박 영구 장로(성남 중앙 지부)—부산 선교부
- 송 병철 장로(상계 1와드)—부산 선교부 \*